

## HIF월간 산업 이슈(2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영향 분석

##### 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국내외 경제 영향은? 김영준

- 신종 코로나 확산의 글로벌 파장이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확대 등으로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전망이며, 한국도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피해가 불가피
-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중국 현지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인한 주요 제조업의 충격이 커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 : 중국궤 글로벌 공급망 위축 안혜영

-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산업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대한 우려 확대. 국내에서도 중국 노출도가 높은 전자·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 화학 등 산업에의 타격 예상
-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기업들의 소재 및 제품 조달 추이,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다변화 등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산업별 주요 이슈

##### 정유 정제마진 하락 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적 악화 폭 확대 전망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중국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로 아시아 지역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
- 이미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하락으로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격이 더해질 경우 타격이 큰 상황이므로 개별 정유사의 특성에 맞는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화학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점, 중국법인 매출 감소 예상

- 국내 화장품 기업은 중국 법인 판매 비중이 약 10%에 달하고, 면세점 채널의 판매 비중이 매우 높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수요 감소, 중국 입국 감소는 화장품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됨
- 이번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매출 비중 및 판매 채널에 따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중소형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이 예상되므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

##### 철강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중국발 수요 둔화로 동북아 철강수급 악화 우려

- 中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금속가격 하락은 2003년 사스 사태 고려 시 단기 충격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중국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 확산 가능성 상존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시장의 철강 수요 둔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

### **반도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 되면 생산, 수요 모두 타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는 YMTC, XMC 등 청화유니그룹 계열의 반도체 기업 2개가 있으며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한 상하이 인근 우시와 쑤저우에는 SK하이닉스(DRAM)와 삼성전자(후공정)가 위치
-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부품, 소재 조달 및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고순도 불화수소 수급도 우려 됨. 특히, 중국 경기가 하강할 경우 반도체 수요 부진을 야기

### **자동차** 단기 영향 제한적, 그러나 장기화시 공급망 타격 불가피

- 우한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의 메카 중 한 곳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중국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 중국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도 부정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상황인데,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

### **조선** 높은 국산화율로 중국 공장 중단에 따른 영향 미미

- 조선업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기자재 국산화가 이루어져 현재 국산화율은 80~90% 수준으로 추정되며, 중국은 조선기자재 수입 국가 비중도 9.8%에 불과해 중국 공장 중단 영향 미미 예상
- 또한 과거 사스 사태 고려 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선박 발주 심리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공장 중단 장기화 시 한국의 반사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 **유통** 매장 휴업, 입출국객 감소, 매장 방문 자제 등으로 매출 손실 불가피

-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매장의 매출 손실, 해외 입출국객 감소와 중국 소비 위축으로 인한 면세점 타격, 매장 기피로 다중집합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의 위축과 온라인 수혜 예상
- 면세점 성장을 둔화로 인한 중소 면세점의 리스크 상승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 손실에 따른 부실 점포 구조조정 촉진이 예상되며, 장기화될 경우 보다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 **호텔업** 객실 판매 및 부대시설 이용 감소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불가피

- 과거 사스 및 메르스 때와 유사하게 외국인 숙박객의 급감이 예상되며 최근 증가하는 내국인 숙박객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단체 모임 취소 등으로 부대 수익의 감소도 우려됨
- 중국 및 우리 정부의 강력한 예방정책의 여파로 과거보다 단기 충격은 더 클 전망이다 상황이며 장기화될 경우 객실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3성 이하 호텔의 부실 가능성에도 유의

### **항공** 여행 수요 감소에 따른 항공사 및 여행사 악영향 불가피

- 중국 노선 운항 중단 또는 감편으로 항공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중국 노선 외에도 여행 자제에 대한 기피로 전 노선에서 단기적인 여행객 감소 우려
- 과거 사스 사태 고려 시 실적 악화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사태 장기화 시에는 업계 추가 구조조정 예상. 한편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항공 화물 물동량도 단기 침체 예상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경제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국내외 경제 영향은?  
신종 코로나 확산 : 중국궤 글로벌 공급망 위축 가능성 확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국내외 경제 영향은?

※ **Summary** :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국도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중국 현지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인한 주요 제조업의 충격이 예상

※ **Comment** : 신종 코로나 확산은 관광객 축소, 中 내수위축,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해외충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

### ■ 초기대응 미흡과 민족 대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최소 2/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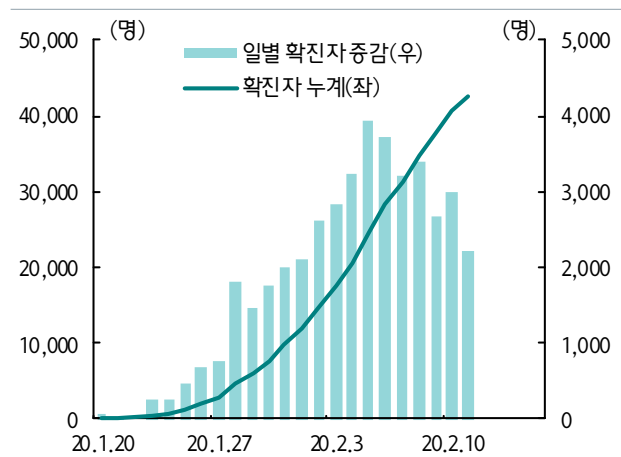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 이하 신종 코로나)가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제2의 사스(SARS) 사태로 비화될 조짐
  - 2002년 광둥성에서 발병한 사스(SARS)는 中 정부의 축소은폐로 2003년 3월에야 알려졌으며 빠른 확산력(37개국으로 확산)과 높은 치사율(9.3%)로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
-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자 중국 방역당국은 후베이성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출입을 봉쇄하고 춘제 연휴 및 기업 조업 중단 연장, 여행금지 등 전방위 대책을 단행
  -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은 후베이 지역 중국인과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
- 중국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과 춘절을 전후한 민족 대이동 등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신종 코로나 사태는 최소 2/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

표1 |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비교

구분	사스 (SARS)	메르스 (MERS)	신종 코로나 (nCoV)	
확진자	세계	8,273명	1,167명	42,763
	한국	4명	186명	27
사망자	세계	775명	479명	1,013
		(치사율 9.3%)	(치사율 39.5%)	(치사율 2.4%)
	한국	0명	38명	0명
최초발생	중국 광둥성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우한	
기간	2002.11~2003.7	2012.4~2015.12	2019.12~현재	

주 : 신종 코로나는 2/11일 기준  
자료 : 각 언론종합

그림1 | 신종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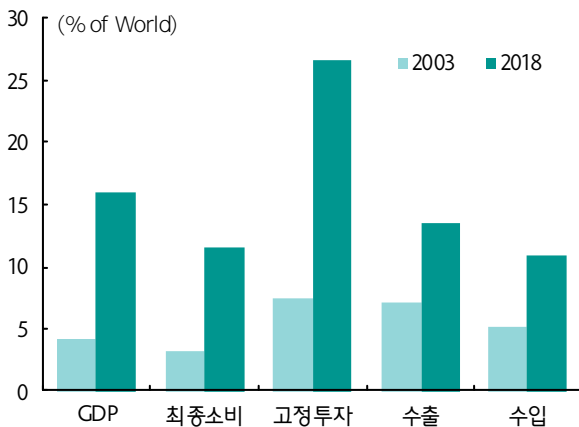


자료 : CEC

■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확대로 경제적 파장이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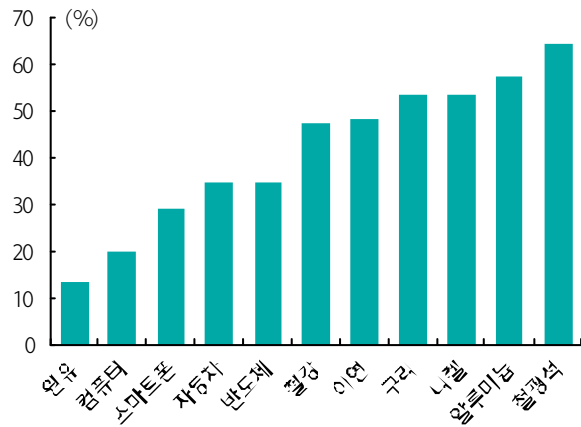
- 주요국 방역당국의 강력한 이동규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 중국을 제외한 낮은 감염도 등을 감안할 때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Pandemic Risk)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사스 치사율이 10%에 육박했던 반면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2.4%(후베이 지역을 제외하면 0.3%에 불과)이며, 중국내 감염자가 전세계 감염자의 99%를 차지
- 그러나 중국 실물경제는 강력한 이동규제와 외출 자제·조업 중단 장기화 등으로 관광, 운송, 소매 및 음식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2%에서 2019년 54%로 확대
  - 휴무 장기화 및 조업재개 차질로 1/4분기 中 조업일수가 예년에 비해 10일 이상 축소될 듯
- 사스 사태 때는 소비둔화(성장기여도: 5.1%p → 3.6%p)를 투자확대(3.6%p → 7.0%p)로 보완했으나, 현재 중국은 투자 디레버리징 중이어서 대응 여력이 부족
  - 주요기관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0.5%p(EIU)~1.2%p(S&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세계경제 역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참여가 확대되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사스 사태 당시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5.9%로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해외관광 지출은 154억 달러에서 2,765억 달러로 급증
  - 주요기관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p 하락할 것으로 추정(무디스, JP 모건 등)

그림2 | 세계경제 속의 중국의 국제적 위상변화



자료 : CEIC

그림3 | 중국 수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자료 : RealInvestmentAdvise.com

■ **관광객 축소, 中 내수위축, GVC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경제도 타격이 불가피**

- 한국경제도 중국경제와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
  - 한국 수출(홍콩 포함) 및 입국 관광객의 對中 의존도는 30%를 상회
- 산업별로는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외출자제에 따른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중국내수 위축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
  -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로 국내 소비의 위축도 발생할 전망
- 더불어 중국 현지 기업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국내 제품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로 인한 주요 제조업 등에 충격이 예상
  - 중국 현지기업의 생산중단으로 국내 자동차 및 가전업체의 생산 및 판매에 문제가 발생

■ **美-이란 갈등, 신종 코로나 등 비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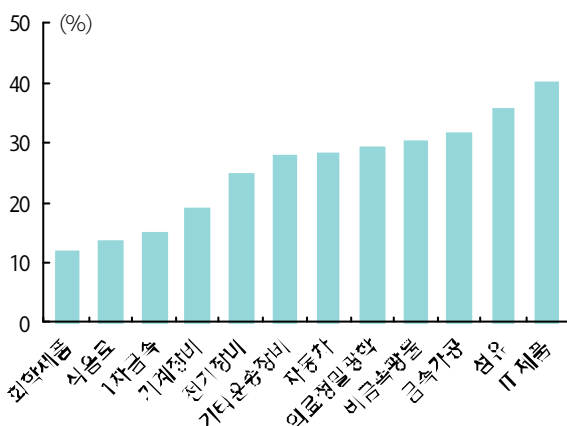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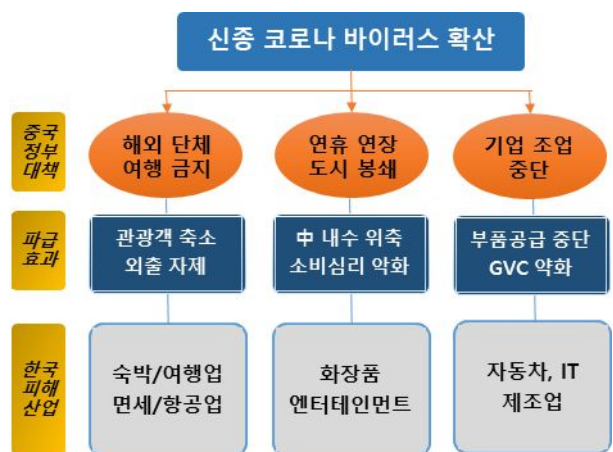
- 연초부터 미국-이란 무력충돌, 호주 대형 산불, 신종 코로나와 같은 비경제적 리스크가 연이어 부각되면서 경제활동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 비경제적 변수는 불안정성, 불확실성, 불가예측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 대응이 어려움
- 수출 의존도와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해외충격의 파급경로와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
  - 해외發 충격이 빈번해지고 충격 강도도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글로벌 익스포저 관리 강화, B/S 및 수익성 관리가 요망 

그림4 | 韓 중간재 수입 중 중국 중간재 비중



자료 : OECD ICIO Tables 2015

그림5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국 피해산업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신종 코로나 확산 : 중국궤 글로벌 공급망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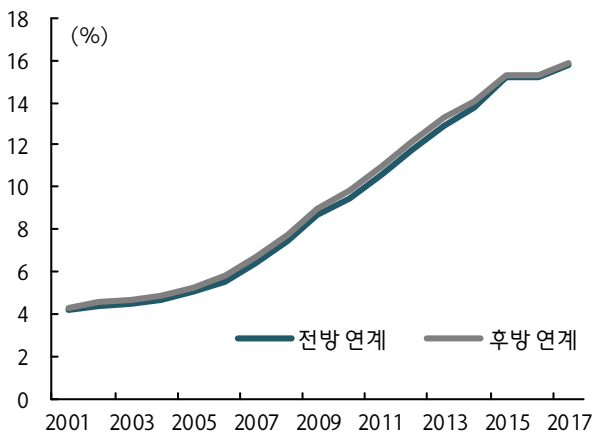
※ **Summary** :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내 주요 생산 지역 공장에 폐쇄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중국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한국 또한 국내 생산 및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전자 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 화학 산업의 경우 전, 후방 공급망이 중국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 중국 공급 차질 발생 시 국내 산업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Comment** :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 존재하므로 국내 기업들의 소재 및 제품 조달 추이,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다변화 등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공급 차질 발생으로 글로벌 공급망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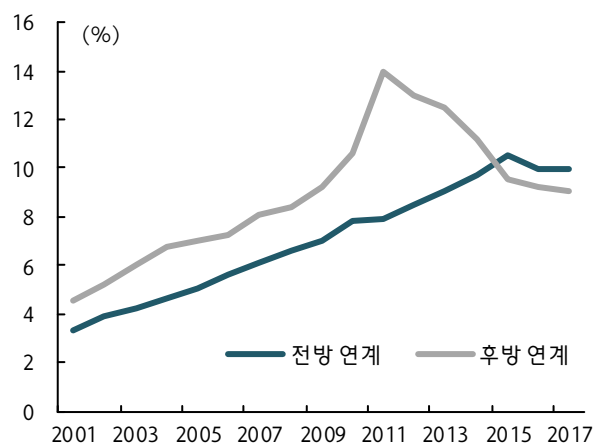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부문이 위축되고 일부 제조업 생산이 중단되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 우려
  - 블룸버그 및 세계 기관들은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을 4%대로 예상
-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생산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에 따른 중국 경기 위축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확대
- 특히 중국은 2000년대부터 글로벌 분업구조에 본격 참여하면서 주요 제품의 중간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 공급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음
- 현재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피해 지역인 우한과 선전, 쑤저우 내 공장을 2월 중순까지 폐쇄 조치하고 있어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
  - 실제 중국 장쑤성 쿤산 소재 폭스콘과 우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공장을 폐쇄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기 시작

그림6 | 세계 총생산액 중 중국 비중



주 : 2000~2009년 WIOD 2016 기준이며, 2010~2017년은 ADB MRIO 2018 기준  
 자료 : UIBE RIG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7 | 세계 GVC 생산액 중 중국 비중



주 : 2000~2009년 WIOD 2016 기준이며, 2010~2017년은 ADB MRIO 2018 기준  
 자료 : UIBE RIG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월 11월 현재에도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요 지역 공장의 폐쇄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16%를 차지하며, 가죽제품, 섬유, 농림/어업, 전자광학 장비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 세계 생산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4%에 불과했으나, 2001년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2017년 약 16%까지 확대
  - 산업별로 살펴보면 가죽제품, 섬유, 전자 광학 장비, 기계, 운송장비 등 산업의 경우 전방과 후방 생산에서 모두 중국의 비중이 높아 해당 산업의 글로벌 수급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산업별 세계 대비 GDP 비중(전방 생산, 후방 생산) : 가죽제품(44.9%, 49.2%), 섬유(38.9%, 33.1%), 농림/어업(30.5%, 26.8%), 전자 광학 장비(27.8%, 36.3%)
  - 음식료, 목재, 비금속광물, 석유제품 등은 경우 전방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으며, 건설업은 후방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 세계 GVC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10%에 달하며, 가죽제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 기계 등 산업에서 중국의 GVC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 세계 GVC 생산에서 중국의 GVC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약 3%(전방,후방/2.2%,1.4%)에서 2017년 약 10%(10.0%, 9.1%)로 확대
  -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상당 부분이 자국 내수로 흡수되고 있어 2010~11년을 고점으로 세계 GVC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 또는 감소
  - 그러나 섬유제품, 가죽제품, 목재/나무제품, 전자광학 장비, 비금속 광물 산업은 글로벌 GVC 생산액 대비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20~30%로 높아 글로벌 전,후방 공급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GVC 대비 중국 비중(전방 생산, 후방 생산) : 가죽/신발(22.8%, 23.7%), 섬유(28.8%, 12.9%), 비금속 광물(21.4%, 6.7%) 전자 광학 장비(16.7%, 25.4%)
  -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산업 전반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소비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할 경우, 중국의 GVC 생산 비중이 높은 섬유, 가죽제품, 전자 광학기기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게 될 전망

표2 | 세계 산업 생산에 대한 중국의 비중 (2017년)

중국의 노출 강도	산업 분류	전방 생산		후방 생산		
		글로벌 생산 중 중국 비중 (%)	글로벌 GVC 중 중국 비중 (%)	글로벌 생산 중 중국 비중 (%)	글로벌 GVC 중 중국 비중 (%)	
중국의 전, 후방 참여 모두 높음	c5 가족/신발	44.9	22.8	49.2	23.7	
	c4 섬유/섬유제품	38.9	28.8	33.1	12.9	
	c14 전자광학 장비	27.8	16.7	36.3	25.4	
	c1 농림어업	30.5	13.3	26.8	12.7	
	c13 기계	25.5	13.2	29.3	17.9	
	c15 운송장비	23.5	9.0	24.9	11.7	
중국의 전방 참여 높음	c3 식음료/담배	25.8	13.5	21.9	8.7	
	c6 목재/나무제품	38.4	20.4	18.9	9.7	
	c11 기타 비금속광물	42.9	21.4	12.3	6.7	
	c12 금속	28.7	12.6	19.8	11.4	
	c24 해상 운송	28.4	14.0	15.4	4.3	
	c2 광업	22.4	5.9	9.7	7.8	
	c8 코크스/석유정제	20.9	10.5	8.1	3.6	
	c9 화학/화학제품	22.4	10.0	10.0	5.3	
중국의 후방 참여 높음	c10 고무/플라스틱	23.5	12.9	11.6	5.5	
	c18 건설	18.1	5.9	31.7	20.6	
	c7 펄프/종이제품	10.8	6.8	2.2	1.7	
	c16 기타 제조업	17.1	14.2	15.2	6.4	
	c17 전기/가스/수도	14.1	8.7	8.0	5.5	
	c20 도매업	19.1	13.4	12.9	5.4	
	c21 소매업	5.8	10.9	2.4	1.4	
	중국의 전, 후방 제한적 참여	c22 호텔/식당	10.9	9.7	8.9	4.1
		c23 육상 운송	17.0	10.9	7.9	2.9
		c27 우편/통신	15.5	5.5	11.2	5.5
c28 금융중개		17.0	11.1	7.0	2.7	
c29 부동산		9.7	10.0	8.4	3.9	
c32 교육		17.1	6.0	19.6	13.7	
중국의 전, 후방 참여 모두 낮음	c34 기타 사회/개인서비스	13.4	9.4	10.9	7.2	
	기타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참여 비중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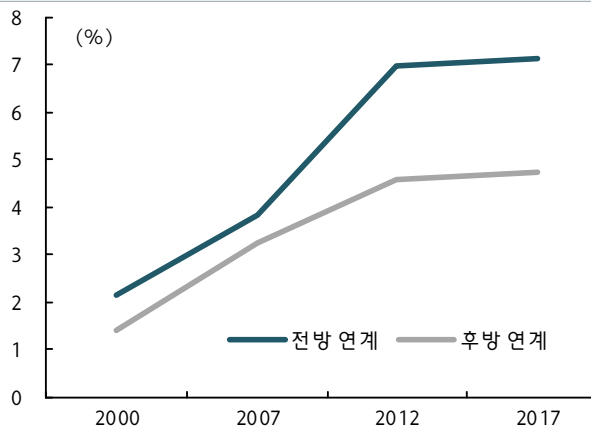
주 : Wang, Wei, Yu, Zhu(2017)의 생산분해법 기준  
 자료 : UIBE RIG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의 총 생산 중 중국의 비중은 전, 후방 각각 7.1%, 4.7%에 불과하나, 가족제품, 화학, 고무/플라스틱, 전자 광학장비 등 일부 산업은 중국의 비중이 높은 편

● 국내 총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전, 후방 각각 2.2%, 1.4%에 그쳤으나 2012년 7.0%, 4.6%로 확대된 후 2017년 까지 정체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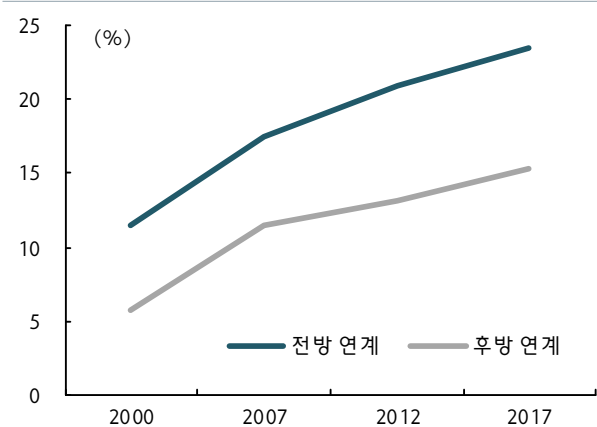
- 이는 한국이 교역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고, 중국도 주요 산업의 자급률 상승과 중국 내 수요 흡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역 비중이 둔화된 것에 기인
  - 국내 산업별로는 전자 광학 장비, 가죽제품은 전, 후방 생산에서 모두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아, 이들 산업의 국내 수요 및 공급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산업별 생산 중 중국 비중(전방 생산, 후방 생산) : 전자광학 장비(25.2%, 24.3%), 가죽제품(15.9%, 18.7%)
  -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은 국내 전방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 중국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되며, 섬유, 목재, 항공업 등은 후방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 중국의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음
- **한국 GVC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전, 후방 각각 23.4%, 15.3%에 달하며 비금속광물, 전자 광학 장비, 화학, 기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한편 한국의 GVC 생산 중 중국 비중은 전방 생산의 경우 2000년 11.4%에서 2017년 23.4%로, 후방 생산은 동기간 5.7%에서 15.3%로 확대
    - 한국의 국제분업구조 참여 확대로 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확대된 반면, 일부 부품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어 한국 GVC생산 중 중국 비중은 지속 상승
  - 국내 산업별 GVC 생산 중 중국의 비중이 전, 후방에서 모두 높은 산업은 비금속 광물과 전자광학 장비로 국내 산업 공급망이 중국과 수요, 공급 변화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됨
    - 한국 GVC 생산액 중 중국 비중(전방 생산, 후방 생산) : 비금속 광물(28.8%, 31.4%), 전자 광학 장비(30.6%, 21.5%)
  - 한편 국내 화학제품, 기계, 기타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전방 GVC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 중국 수요 변화에 영향 받게 되며 섬유, 운송장비, 건설, 해운 산업은 후방 GVC 생산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 중국 공급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

그림8 | 국내 총생산액 중 중국 비중



자료 : UIBE RIG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9 | 국내 GVC 생산액 중 중국 비중



자료 : UIBE RIG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따라서 중국 發 공급 차질 발생 시 국내 후방 GVC 생산에서 중국 기여도가 높은 비금속 광물, 전자광학 장비, 섬유, 운송장비 산업의 국내 공급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와 소비 위축 지속 시, 국내 전방 GVC에서 중국 기여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 산업과, 도소매업 등에 타격 예상

표3 | 한국 산업 생산 중 중국의 비중(2017년)

중국의 노출 강도	산업 분류	전방 생산		후방 생산		
		한국 총 생산 중 중국 비중 (%)	한국 GVC 생산 중 중국 비중 (%)	한국 총 생산 중 중국 비중 (%)	한국 GVC 생산 중 중국 비중 (%)	
중국의 전, 후방 참여 모두 높음	c5 가족/신발	15.9	24.1	18.7	13.9	
	c11 기타 비금속 광물	12.9	28.8	16.9	31.4	
	c14 전자광학 장비	25.2	30.6	24.3	21.5	
중국 전방 참여 높음	c9 화학/화학제품	17.2	29.6	5.6	10.3	
	c10 고무/플라스틱	15.2	22.0	12.7	12.1	
	c13 기계	12.9	24.5	11.9	16.5	
	c16 기타 제조업	16.1	35.2	14.7	16.8	
	c19 자동차 등 판매	9.5	24.0	1.6	12.0	
	c20 도매업	9.6	25.9	1.7	11.2	
	c21 소매업	9.5	24.8	1.6	11.7	
	c17 전기/가스/수도	5.9	22.1	2.4	6.8	
	c1 농림어업	3.0	20.2	2.9	12.0	
	c2 광업	10.2	18.9	8.2	13.6	
	c8 코크스/석유정제	12.9	19.8	4.2	4.9	
	c3 식음료/담배	9.5	20.4	7.2	12.3	
	c23 육상 운송	6.2	22.8	2.1	8.2	
	c26 기타 운송지원/여행서비스	9.5	21.3	4.0	13.4	
	c27 우편/통신	5.0	20.4	1.1	15.3	
	c28 금융중개	3.9	21.1	1.4	13.6	
	c29 부동산	1.9	21.1	0.4	12.5	
	중국 후방 참여 높음	c4 섬유/섬유제품	3.4	15.7	30.2	21.2
		c6 목재/나무제품	7.0	23.2	29.2	12.0
c25 항공		14.7	21.2	15.5	8.2	
중국의 전, 후방 제한적 참여	c7 펄프/종이제품	6.1	18.0	4.1	12.9	
	c12 금속	10.2	17.7	11.0	13.2	
	c15 운송장비	5.6	18.9	7.2	17.6	
	c18 건설	0.2	20.7	4.8	18.2	
	c24 해상 운송	5.0	7.4	7.2	20.6	
	c32 교육	0.4	18.3	1.2	13.4	
	중국의 전, 후방 참여 모두 낮음	공공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참여 비중 미미			


주 : Wang, Wei, Yu, Zhu(2017)의 생산분해법 기준  
 자료 : UIBE RIC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은 수출 기준으로, 전자, 광학기기, 기계, 가죽제품, 화학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 수급에 대한 노출도가 높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한국 총 수출 중 對중국 비중은 24.4%(중간재 수출 27%, 최종재 수출 20%)로 한국은 중국 수요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기간 한국 총 수입 중 對중국 비중 또한 21.5%(중간재 수입 16%, 최종재 수입 23%)에 달해 한국은 중국의 공급에 대한 노출 또한 높게 나타남
  - 산업별로는 전자 광학 장비, 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가죽제품, 항공 등 산업에서 국내 수출과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파악됨

표4 | 한국 주요 산업 수출과 수입에 대한 중국 노출도(2017년)

중국의 노출 강도	산업 분류	중국 수요에 대한 한국 노출도		중국 공급에 대한 한국 노출도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	중국 최종재 수출비중(%)	중국 중간재 수입비중(%)	중국 최종재 수입비중(%)
수요, 공급에 모두 노출	c14 전자, 광학기기	40	40	37	53
	c16 기타 제품 제조업	82	36	39	28
	c13 기계	28	25	24	20
	c4 가죽/신발	31	55	14	57
	c25 항공	21	7	15	20
중국 공급에 노출	c5 섬유	16	14	42	48
	c6 목재/나무	10	7	25	57
	c12 금속	12	8	25	29
	c17 유틸리티	2	2	14	28
	c15 운송장비	18	3	27	6
중국 수요에 노출	c7 펄프/종이	10	21	10	6
	c9 화학	36	17	17	8
	c10 고무/플라스틱	22	20	15	16
	c19 자동차판매	28	42	<1	<1
	c20 도매	36	27	2	3
	c21 소매	32	31	<1	<1
수요, 공급 모두 중국 노출 낮음	c34 개인서비스	6	14	4	3
	c1 농업	8	7	3	9
	c2 광업	7	5	0	14
	c22 호텔/레스토랑	2	2	1	1
	c23 육상운송	2	3	2	2
	c24 해운	1	1	2	<1
	c29 부동산	3	3	0	0
	c30 기타 사업 서비스	5	10	12	4
	c32 교육	2	1	0	0

자료 : UIBE RIGV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섬유, 목재/나무제품, 금속, 운송장비 등의 산업은 국내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공급에 대한 노출도가 높음
  - 한편 화학, 고무/플라스틱, 도소매 등의 업종은 국내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수요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신종 코로나 확산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 중 중국 노출도가 높은 전자 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 화학 등 산업의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전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생산과 수출 및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 산업은 중국 산업별 수급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산업별로는 전자 광학기기, 기타 제조업, 운송장비, 기계, 화학 등 주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급 노출도가 높게 나타남
  - 현재 중국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후베이성과 중국 내 생산 거점이 밀집된 저장성, 산시성, 광둥성 내 일부 자동차 부품, 전자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중국 내 일부 공장이 조업을 재개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가능성 낮음
  - 또한 중국 신종 코로나가 단기간 내 안정되지 않고 전역으로 확대되어 중국 산업 생산 시설 전반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국 수급 노출도가 높은 기계, 화학, 기타 제조업 등에서도 국내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중국 노출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 중국<sup>2)</sup> 공급차질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기업들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의 산업의 부품,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선 다변화와 해당 부문 신규 투자가 필요
    - 산업별 국내 부품소재 자급률 :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45%, 자동차 66%
  - 산업 내 대형 기업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공급처 확보가 가능하며, 필요 시 투자 여력도 확보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대비 공급처 다변화가 어렵고, 경기위축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차입금 상환 및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 신규 투자도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각 산업 내 기업들의 소재 및 제품 조달 추이,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다변화 등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산업 이슈

- 정유 : 정제마진 하락 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적 악화 폭 확대 전망
- 화학제품(화장품) :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점, 중국법인 매출 감소 예상
- 철강 : 장기화 시 중국발 수요 둔화로 동북아 철강수급 악화 우려
- 반도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 되면 생산, 수요 모두 타격
- 자동차 : 단기 영향 제한적, 그러나 장기화시 공급망 타격 불가피
- 조선 : 높은 국산화율로 중국 공장 중단에 따른 영향 미미
- 종합유통 : 매장 휴업, 입출국객 감소, 매장 방문 자제 등으로 매출 손실 불가피
- 호텔업 : 객실 판매 및 부대시설 이용 감소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불가피
- 항공운송 : 여행 수요 감소에 따른 항공사 및 여행사 악영향 불가피

### C19 정유 : 정제마진 하락 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적 악화 폭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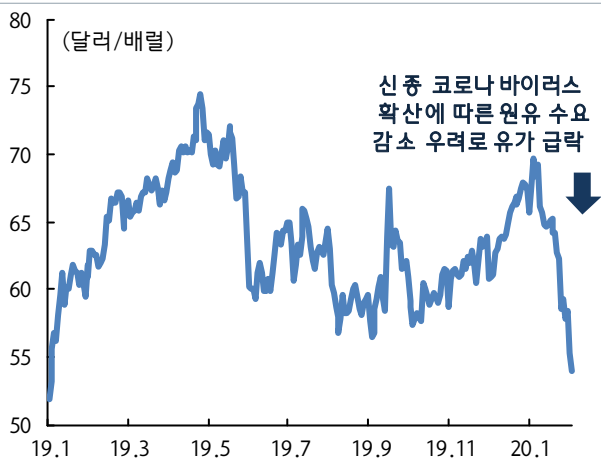
※ **Summary** :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 및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요 감소분을 수출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0년 아시아 지역 석유 제품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약세가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1/4분기 재고평가 손실 발생과 주요 석유제품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 할 전망

※ **Comment** : 이번 사태가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유가 및 석유제품 수급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 중국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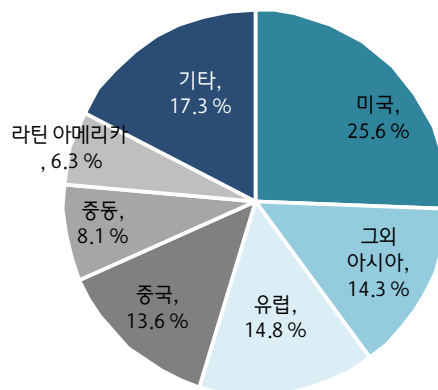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 제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확대
  - 중국 전문 연구기관 플래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1월 OPEC+ 추가 감산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원유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격히 하락
  - 1월 6일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1월 31일 배럴당 58달러로 추락
- 이는 중국이 세계 2위 석유 소비 국가(전 세계 수요의 13.6%)이자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석유 수급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
  - IE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평균 기여율은 39%이며 최근 5년 평균 기여율은 41%에 달함

그림10 | 국제 유가 추이(Dubai유 기준)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1 | 국가별 석유 수요 비중(2019년 기준)



자료 : IEA OMR,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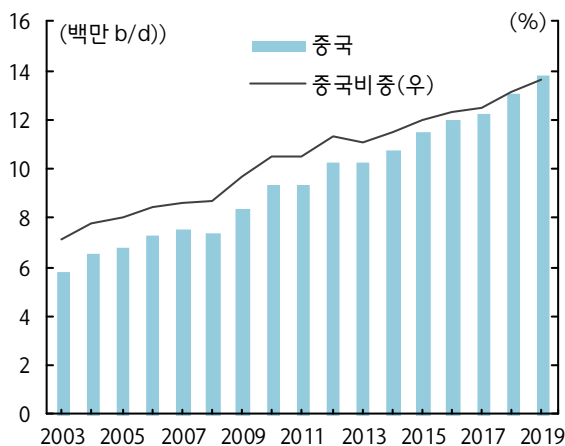
## ■ 중국 운송용 연료 수요 감소와 전 세계 항공유 수요 감소가 가시화

-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에서 시내 대중 교통과 외부로 나가는 항공편 및 열차 운영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도 지난 2003년 SAR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 내 운송용 연료 수요 감소 가시화
  - SCMP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에만 중국 내 항공, 철도, 운송량이 전년동기비 40% 감소
- 또한 국내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항공사들이 우한 직항 노선 및 중국 일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있어 전 세계 항공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
- 글로벌 에너지정보업체들은 과거 SARS 사태를 미루어 볼 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 석유 수요 감소분은 50~60만 b/d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 치사율, 방역 대책에 따라 지속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중국 및 세계 석유 수요 감소분은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중국 석유 수요가 SARS가 발발한 200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SARS와 유사한 타격을 미치더라도 중국 및 세계 석유 수요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높음

## ■ 중국 등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사, 2020년 수출 환경 악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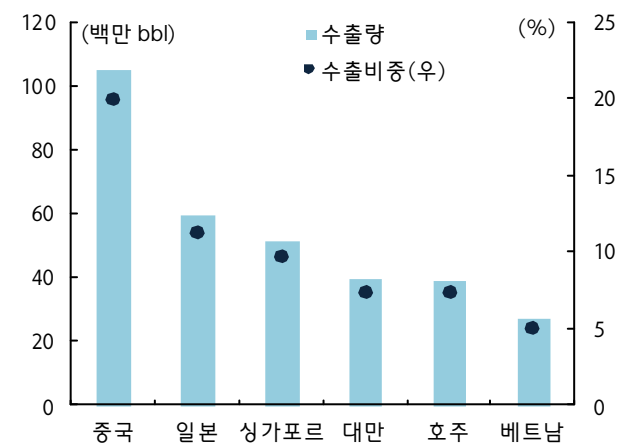
- 국내 정유사의 수출 의존도는 50%에 달하며 이 중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중국 경유, 항공유 석유 수요 감소폭이 확대될 경우 국내 정유사 수출에 타격이 예상
- 또한 지난해부터 중국 신규 정유설비의 상업 가동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중국이 이를 수출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 아시아 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12 | 중국 석유 수요 및 비중 추이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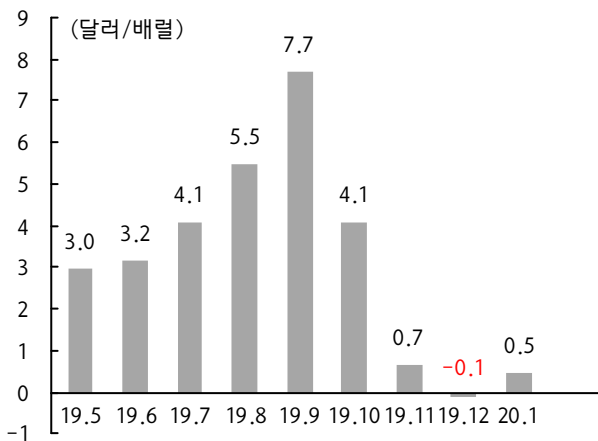
그림13 | 국내 석유제품 주요 수출국 현황 (2019년)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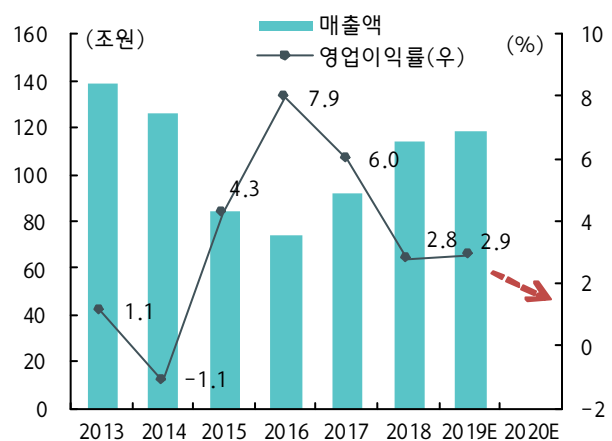
- 중국은 2019년 80만 b/d 규모의 석유정제능력을 확장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하루 46만 b/d의 정제시설을 추가 가동할 예정
- 이는 결국 아시아 시장 내 주요 석유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정유사들의 수익성 지표가 되는 정제 마진(석유제품 가격과 원유 가격의 차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2020년 상반기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전망**
  -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공급과잉과 IMO 2020 시행을 앞두고 고유황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배럴당 4달러 내외)을 하회
    - 정제 마진: 4.1\$/bbl(10월) → 0.7\$/bbl(11월) → -0.1\$/bbl(12월) → 0.5\$/bbl(1월)
  - 여기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로 공급과잉이 확대되면서 수출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정제마진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또한 유가가 단기간 내 급락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 가치가 하락한 점 또한 1/4분기 정유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사태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이미 국내 정유업 대내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충격까지 더해지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과거 SARS 사태로 미루어 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개 상황에 따른 유가 및 석유제품 수급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유업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

그림14 | 최근 싱가포르 정제마진 추이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5 | 주요 정유사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20 화학제품(화장품) :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점, 중국법인 매출 감소 예상

※ **Summary** :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법인 판매 비중이 약 10%에 달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이번 사태로 중국인 및 외국인 여행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면세점 채널 및 로드샵 매장의 판매도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나 기업별 주력 판매 채널, 판매 지역 등에 따라 타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Comment** : 이번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매출 비중 및 판매 채널에 따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중소형 기업의 더 큰 충격이 예상되므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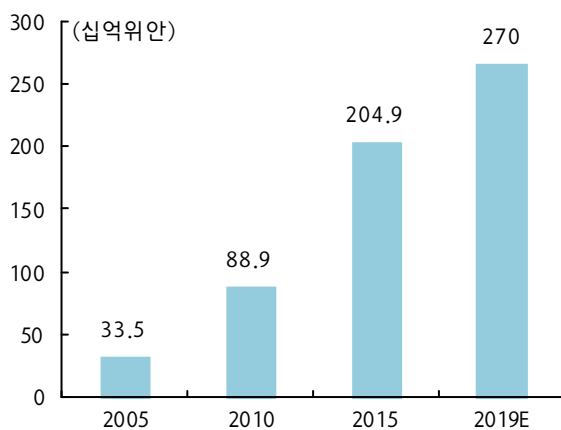
### ■ 국내 화장품 업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긴장감 고조

- 국내 화장품 업계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매출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시진핑 주석 방한 계획과 한한령(限韓令) 해제 가능성 확대로 최근 중국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그러나 지난 1월 말부터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 우한과 주요 도시의 일부 국내 화장품 매장의 영업을 중단된 상황
  -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중국 내 각각 1,800여개, 300여개 매장을 운영 중
- 또한 국내 중국 입국자수 급감으로 면세점을 비롯한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으며, 내국인 소비도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

### ■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판매 의존도는 약 10%에 달해 중국 전역 확산 시 타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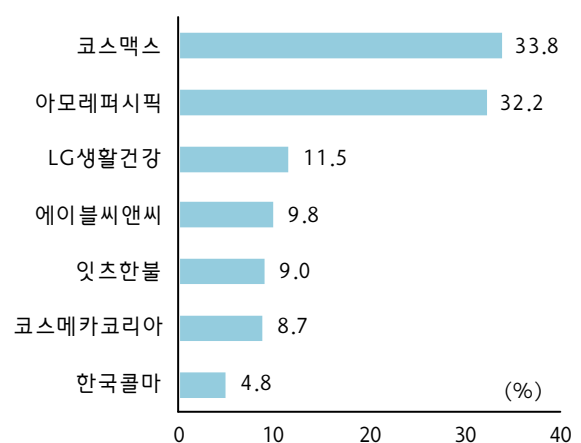
- 지난 10여년 간 중국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국 내 화장품 판매액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도 성장성이 높은 중국 진출을 추진해 옴

그림16 |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액



자료 : CEIC, 2019년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망

그림17 |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 중국법인 매출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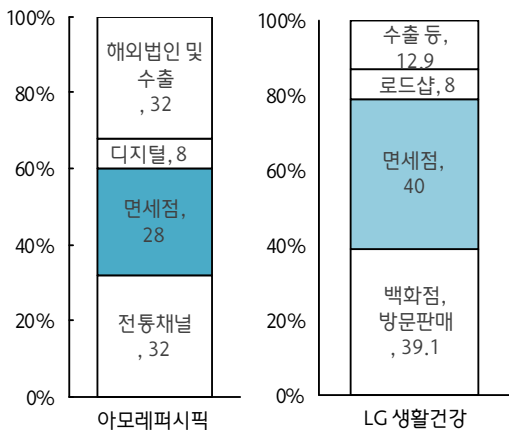
자료 : CEO스코어

-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화장품 상장사(9개사 기준)의 중국 법인 매출의존도는 2017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를 상회
  - 중국법인 평균 매출 비중(연결 기준): 14.6%('17) → 13.8%('18) → 10.3%('19.3Q)
-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감염지역인 우한시의 화장품 매출 비중은 크지 않으나, 바이러스가 북경, 상해 등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건강 등은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

■ 중국인 입국자수 감소로 국내 오프라인 채널(면세점, 로드샵 등)의 판매 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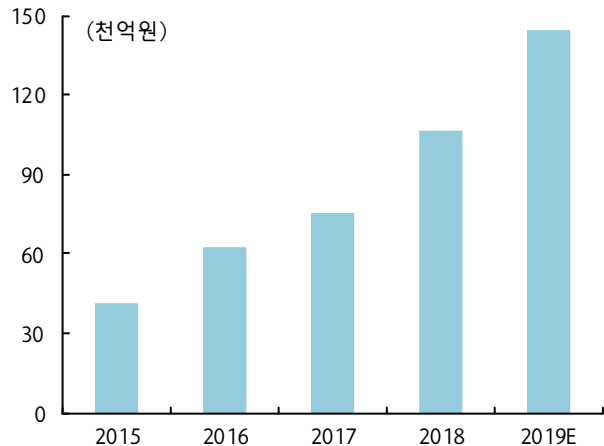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가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오프라인 채널의 판매 감소 우려
- 이번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채널은 중국인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면세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면세점 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면세점 매출 중 보따리상(파이공)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입국자수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재 확산 추세 지속 시 이들도 한국을 오가기 어려울 전망
-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전체 매출 중 면세점 판매 비중이 30~40%에 달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지난 '15년 메르스 발생 직후인 6,7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3/4 분기 면세점 채널의 매출은 전년동기비 26% 감소
-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확산되면서 중국 외 아시아 관광객의 국내 유입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국내 화장품 로드샵 판매도 부진이 지속될 전망

그림18 | 주요 화장품 기업의 면세점 채널 판매 비중



주 : 2019년 3분기 기준  
자료 : 각 사 사업 보고서

그림19 | 국내 면세점 화장품 판매액



주 : 2019년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관세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중국 소비 위축 장기화 시 화장품 ODM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

- 한편 이번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국내 화장품 ODM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타 브랜드 화장품 기업 대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그러나 최근 중국 화장품 기업으로의 수주 확대가 화장품 ODM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로 중국 화장품 소비가 감소할 경우 ODM 기업의 수주 감소 불가피
  - 중국 내 현지 고객사들이 일시적으로 주문을 축소하고 있으며, 사태가 확대될 경우 공장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 반면 화장품 온라인 판매 비중 상승, 생활용품 판매 증가는 화장품 기업의 매출 감소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나 실제 영향은 제한적

-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자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화장품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반면 중국 및 한국을 중심으로 화장품 온라인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일부 화장품 기업의 경우 손소독제, 항염 및 항균 제품 등 생활용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화장품 부문 매출 감소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국 및 전세계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

## ■ 기업별 중국 매출 비중 및 주력 판매 채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필요


-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 화장품 기업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나 각 기업별 주력 판매 채널, 판매 지역 등에 따라 타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법인 매출비중이 높고, 면세점 판매 채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리스크 높음
- 이번 여파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기업의 경우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업별로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일부 중소형 브랜드샵 기업은 사드 여파와 경쟁 심화로 이미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

표5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장품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국내		해외		
		면세 채널	기타 오프라인 채널	중국	싱가폴/홍콩	북미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큰 타격	제한적 타격	큰 타격	큰 타격	영향 미미
	LG 생활건강	큰 타격	제한적 타격	큰 타격	제한적 타격	영향 미미
화장품 ODM	코스맥스	제한적 타격		큰 타격	-	영향 미미
	한국콜마	제한적 타격		큰 타격	-	영향 미미

자료 : KB 증권, 언론기사

### C24. 철강 :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중국발 수요 둔화로 동북아 철강수급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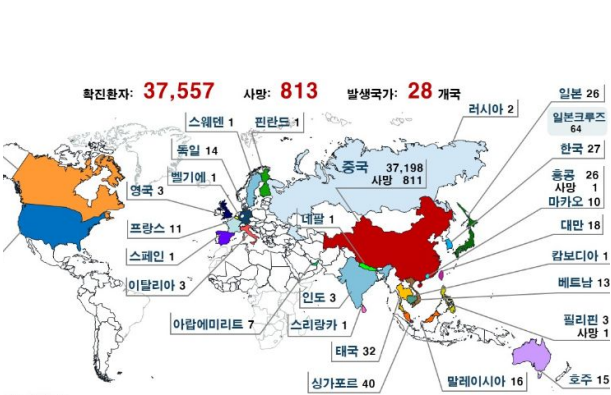
※ **Summary** :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속가격이 하락. 금번과 유사한 사례로 2003년 사스 사태를 참고하면 전염병 확산이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충격으로 제한. 다만, 중국이 자원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하면서 원자재 시장의 수퍼 사이클을 주도했던 2003년과 달리 현재 중국 내 산업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확산 가능성 상존

※ **Comment** :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수요 둔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

#### ■ 2020년 초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속시장 급락 가능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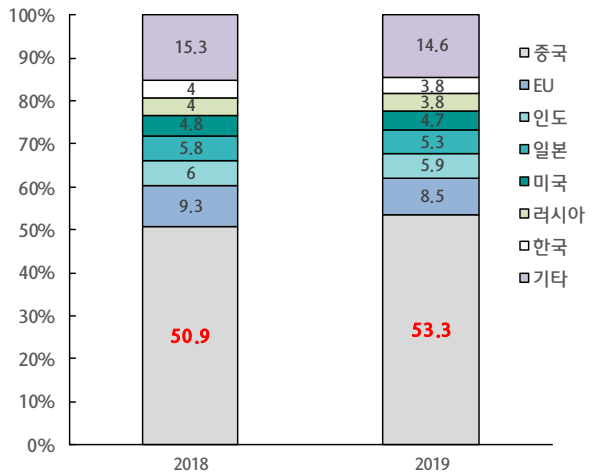
-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nCoV)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
  -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이후, 12월 31일 WHO가 원인 미상 폐렴에 대해 경고하였고, 2020년 1월 10일 첫 사망자가 발생 후 감염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자 1월 27일 WHO는 우한폐렴의 등급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
- 전 세계 제 1의 금속 생산(수요) 국가인 중국 내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철강·비철금속 등과 같은 산업금속 가격의 급락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은 전 세계 주요 산업금속(철강,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생산(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경기 변동이 금속가격 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

그림2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



주 : 2020년 2월 9일 기준  
자료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그림21 | 전 세계 철강산업 내 중국 비중 확대



자료 : 세계철강협회

## ■ 中 춘절 연휴의 연장으로 중국 유통가격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선물가격 중심으로 하락

- 중국 철강제품의 유통가격은 춘절 연휴가 연장되면서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주요 금속의 선물가격이 연초 급락 장세를 시현
  - 중국 정부는 당초 1월 25일부터 30일까지인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연장하였고,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의 경우 13일까지 연장(상해, 장수성 내 일부 기업은 9일까지 휴일을 연장)
- 특히 대표적인 산업금속인 전기동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LME 재고가 지속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었으나, 최근 단기간 내 재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격이 급락
  - 2020년 1월말 LME 전기동 3개월 선물가격 12월 고점 대비 7.6% 하락하면서 톤당 6천 달러를 하회

## ■ 2003년 사스 사태를 참고하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락은 단기적 영향으로 제한

- 금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가 있는데, 중동과 한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메르스보다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
- WHO가 사스 경보를 발령한 2003년 3월 15일 이후 주요 금속가격이 7~8% 정도 하락하였고, 6월 27일 경보가 해제된 이후에는 가격이 완만하게 반등
  - 2003년 사스 사태 시기, 중국 분기 GDP 성장률이 1%p 내외 하락하였으나, 수개월 후 회복
- 따라서 전염병 발병 관련 충격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2차 산업 경기와 직결된 금속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전염병 관련 경제 충격은 인구밀집 상권 및 대면서비스 업종 등과 같은 3차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

그림22 | 국제 LME 가격 추이



자료 : Korea PDS

표6 | 2003년 사스와 2020년 우한 폐렴 비교

특징	사스	우한 폐렴
발생 시기	2002.11~2003.7	2019.12~
발생 장소	중국 광둥	중국 우한
지역사회 감염력	有	有
백신 및 치료제	無	無
확진자 사망자 치사율	8,096명 774명 9.6%	34,844명 724명 2.1%
경제영향	2003년 GDP 영향 홍콩 -2.6%p 중국 -1.0%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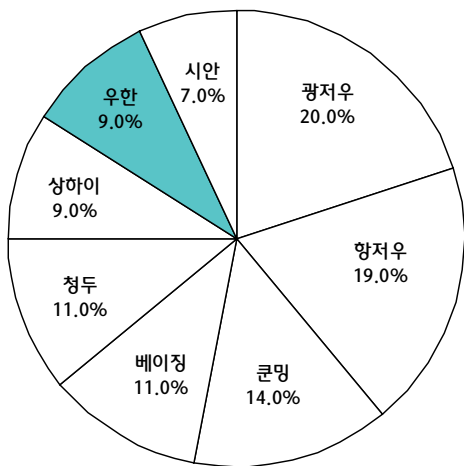
주 : 2019년 2월 8일 기준

자료 : 언론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 다만, 현재 중국의 산업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 확산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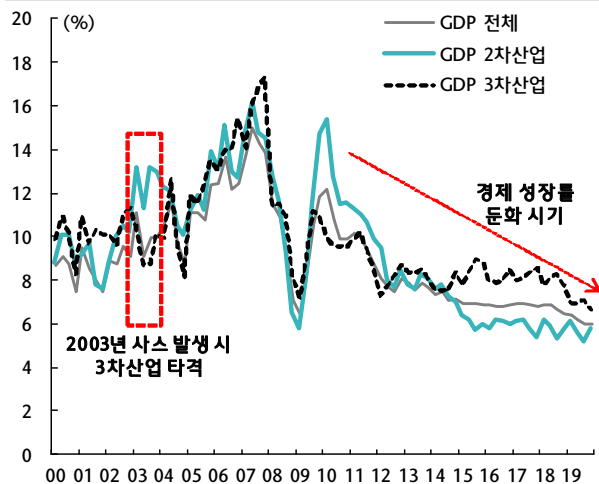
- 최근 중국 제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비철금속 및 철광석 등의 원자재 선물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금속산업의 수급 및 전방산업의 경기 흐름이 변화
- 먼저 공급측면에서 우한시 도로 봉쇄에 따른 원재료 도입 차질 및 연휴 연장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철강제품의 공급 축소 가능성 제기
  - 세계 2위의 철강기업인 우한강철이 우한시에 소재하고 있고, 우한시 내 주요 철강재(열연, 냉연, 철근)의 유통재고는 중국 전체 재고의 8~9% 수준을 차지
- 다만, 공급측면에서의 이슈는 일시적 현상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을 고점으로 하락 전환하였고 2019년 6% 대 초반을 기록한 가운데, 금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중 무역합의(1단계 무역합의 서명 1.15)의 경기개선 효과가 상쇄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
- 2003년 사스 이슈 발생 시 중국의 분기 GDP가 1%p 정도 하락하였으나, 당시 중국은 자원 블랙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성장 추세를 지속
  - 2003년 분기별 중국 GDP 성장률(%) : 11.1(1Q) → 9.1(2Q) → 10.0(3Q) → 10.0(4Q)
- 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외부충격에 대한 감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추가적인 경기 급락 시 상품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의 유통가격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그림23 | 중국 주요시장 내 철근 유통재고 비중



자료 : Korea PDS

그림24 | 중국 산업 경기지표 추이



자료 : Korea PDS



## ■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 철강제품의 수입 지연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방산업 생산 위축에 따른 수급 악화가 우려


- 2020년 2월 초 POSCO, 현대제철 등의 주요 철강기업이 중국 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 내 국내 철강제품의 유통가격이 상승
  - 연초 국내 주요 철강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열연, 후판, 냉연 등의 판재류 가격을 인상
-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시장 내 수요 감소 및 원부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전방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철강 유통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수급이 악화될 전망
- 따라서 국내 공급 물량 중 수입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시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
  - 철강제품의 대중 무역수지는 2005년 이후 순수입 상황을 지속 중이며, 2010년 이후 규모가 확대
- 국내 철강제품의 제1 수입 국가는 중국이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판재류 대비 봉형강류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2019년 국내 철강제품 수입 중 중국비중은 50.6%이며, 품목별로는 봉형강 62.2%, 판재류 54.7%
- 특히 봉강, 선재 등의 봉형강류 제품은 수입비중이 20% 이상으로 높고, 중국의존도가 70%를 상회하여 중국시장의 수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판재류 중 아연도 및 칼라강판의 경우 수입비중이 10%대이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 비중이 90%를 초과하며, 열연은 수입규모 자체가 커 중국 시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표7 | 주요 철강제품 품목별 수입비중 및 중국시장 의존도

분류	품목	생산 (십만 톤)	수입		수입비중 (%)	주요 수입국가의 물량 비중 (%)					
			물량(십만 톤)	증가율(%)		일본	중국	대만	인니	프랑스	
판재류	열연강판	382	46	2.2	10.6	일본	49	중국	40	대만	5.0
	냉연강판	97	9	16.0	8.8	중국	66	일본	16	인니	10.6
	중후판	95	19	20.8	16.7	중국	50	일본	45	벨기에	1.0
	전기강판	8	1	-20.6	7.9	중국	75	일본	23	프랑스	0.6
	아연도강판	98	13	14.6	11.8	중국	92	일본	7	미국	0.1
	칼라강판	22	3	-5.0	10.2	중국	99	홍콩	1	베트남	0.5
	석도강판	6	0	-18.8	4.9	중국	73	일본	20	대만	6.7
봉형강류	형강	46	9	13.0	16.1	일본	37	중국	27	베트남	20.3
	봉강	30	9	1.3	23.0	중국	89	일본	6	인디아	1.6
	철근	99	8	42.3	7.3	중국	60	일본	25	대만	14.2
	선재	35	12	7.9	25.3	중국	70	일본	24	대만	2.9
	강관	47	6	1.4	10.8	중국	74	일본	17	독일	3.8

주1 : 2019년 연간 기준

주2 : 주요 수입국가의 물량 비중은 해당 품목 전체 수입 중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철강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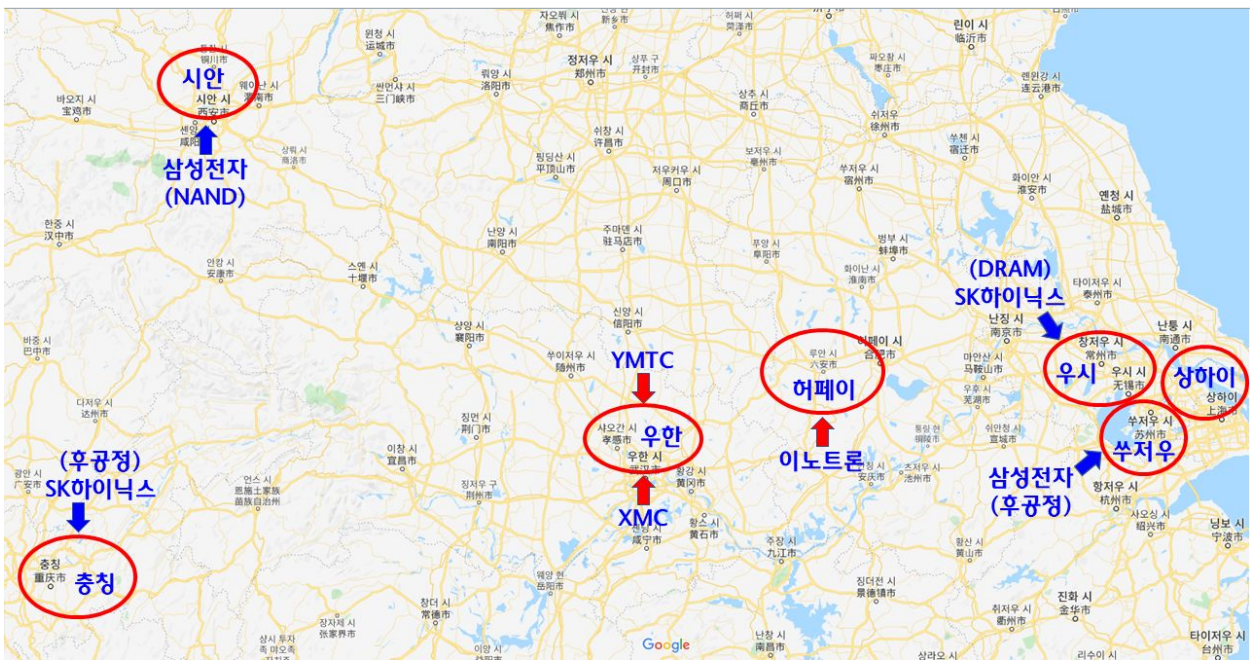
## C26. 반도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 되면 생산, 수요 모두 타격

※ **Summary**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는 YMTC, XMC 등 칭화유니그룹 계열의 반도체 기업 2개가 있으며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한 상하이 인근 우시와 쑤저우에는 SK하이닉스(DRAM)와 삼성전자(후공정)가 위치.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부품, 소재 조달 및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고순도 불화수소 수급도 우려 됨. 특히, 중국 경기가 하강할 경우 반도체 수요 부진을 야기

※ **Comment** :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진정되며 수출, 실적 등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에 생산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

- 우한에 중국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는 칭화유니그룹 계열의 반도체 기업 2개 존재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에는 정부가 육성하는 첨단 기술 단지(High tech Development Zone)가 있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는 칭화유니그룹이 포진
    - 칭화유니 계열사 중 NAND를 생산하는 YMTC와 파운드리인 XMC가 단지 내에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우한에서 700~800km 떨어진 시안과 우시에 있으나 상하이 등 휴무 및 폐쇄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
    -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 인접한 허페이에는 중국의 DRAM 업체인 이노트론이 있음

그림25 | 중국 우한의 반도체 공장 및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위치



자료 : 구글지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부품, 소재, 물류 문제로 현지 생산 차질 우려되며 불화수소 등 일부 소재는 국내도 문제**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우한에 인접하지는 않으나 휴업 연장 조치 등으로 현지 조달하던 부품, 소재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항공기 등 물류도 원활치 않음
- 또한,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하이는 강제 휴무, 디즈니랜드 폐장 등 강경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일부는 상하이 인근에 위치
  - 삼성전자의 후공정 시설(쑤저우)과 SK하이닉스의 DRAM 공장(우시)은 상하이와 인접
- 현지 공장의 생산 차질 우려 외에도 반도체 핵심 소재 탈(脫)일본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도입하고 있는데 조업 중단 발생 시 국내 공장도 영향
  - 중국의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자인 DFD는 우한 북부 약 600km 떨어진 자오쥘에 위치

■ **생산 차질보다 중국 경기 하강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과거 경험 상 전염병 창궐로 국내 생산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진원지인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 국가라는 점에서 수요 위축이 우려됨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태 지역의 반도체 시장 비중: 60.3%('18), 62.7%('19)
- 특히, 한국은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의 중국(홍콩 포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국의 경기 둔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2019년 기준 반도체 수출의 중국(홍콩) 비중 67.3%, 기여도 80.1%
- 중국 혹은 국내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재고를 낮추고 가격을 강제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경우 오히려 기업 실적은 악화될 수 있음
  - 최근 완공된 공장의 감가상각비 부담 및 증설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이 크게 작용 

그림26 |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자인 DFD의 위치



자료 : 구글지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8 | 중국과 반도체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비중		기여도	
		'18	'19	'18	'19
중국 수출 / 총수출		34.4	31.0	86.9	64.3
반도체 수출 / 중국 수출		37.4	31.6	64.2	61.5
중국 수출 / 반도체 수출		70.9	67.3	73.0	80.1
반도체 수출 / 총수출	HS 기준	18.1	14.6	76.4	49.4
	MTI 기준	20.7	17.2	90.7	50.4

주 : 중국 수출에 홍콩 포함, (HS 8542 기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우한까지 거리

그림27 | 우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우한까지의 거리



자료 : 구글지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8 |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우한까지의 거리



자료 : 구글지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30. 자동차 : 단기 영향 제한적, 그러나 장기화시 공급망 타격 불가피

※ **Summary** :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기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우한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의 메카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중국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중국發 자동차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Comment** :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요청중이고, 민간에서도 동남아 등지에서 부품 수급을 모색 중이기 때문에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태 장기화시 공급망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기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

- 2019년 12월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 등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며,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
-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
  - 바이러스별 재생산지수<sup>1)</sup>는 메르스 0.4~0.9명, 사스 4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4~2.5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빠르고 감염증의 백신 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
  -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

표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비교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종류	코로나바이러스		
발견시점	2019년	2002년	2012년 (한국 2015년)
발견장소	중국 우한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유행시기	2020년	2002~2003년	2015년
감염매개체	박쥐(추정)	박쥐	단봉낙타
전염성 (세계보건기구 추정)	사스보다 낮고 메르스보다 높음	메르스보다 높음	사스보다 낮음
	사람 간 전염		
감염/사망자	2,900여명/81명*	8,000여명/774명	2,500명 중 35% 사망

주 : \* 2020년 1월 27일 오후8시 기준  
자료 : 세계보건기구, 질병관리본부, 연합뉴스

표10 |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중국	37,198명(사망 811)
아시아	홍콩 26명(사망 1), 대만 18명, 마카오 10명, 태국 32명, 싱가포르 40명, 일본 26명 베트남 13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16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7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b>한국 27명</b>
아메리카	미국 12명, 캐나다 7명
유럽	프랑스 11명, 독일 14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3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5명
기타	일본 크루즈 64명

주 : 2020년 2월 9일 16시 기준  
자료 : 질병관리본부

1)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일상생활에서 몇 명의 2차 감염자를 낳는지 보는 것으로 높을수록 감염력이 강함

- 그러나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태국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
  - 2020년 2월 9일 16시 기준 중국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3만 7,198명, 사망자는 811명으로 나타남

■ 우한은 중국 화중 지방의 경제, 교통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의 메카

- 2018년 기준 우한의 총 GDP는 약 81조원, 1인당 GDP는 2200만원이고, 연평균 GDP 성장률은 8%에 육박할 정도로 고성장을 지속 중
- 이러한 고성장의 이면에는 세계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약 650여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우한에 진출을 하였기 때문
- 중국 로컬 업체와 합작형태로 중국 우한에 진출한 대표적인 글로벌 완성차업체로는 GM, 혼다, 닛산, PSA, 르노, BYD, 인피니티 등이 있음
- 중국 내수판매 2위 GM은 우한에 직원 6,000명, 연간 48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GM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내수판매 3위에 오른 혼다도 우한시에 연간 60만대 규모 생산능력을 가동 중이고, 같은 해 4월 우한에 제3공장까지 신규 가동하는 등 사업을 확장 중
-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우한시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은 207만 7천대이고, 계획대로라면, 2021년 말 311만 5천대로 증가할 예정
  - 지리, 혼다동풍, 닛산동풍, 르노동풍, 동풍, BYD 등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표11 | 중국 우한시 자동차공장 현황

업체	생산공장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
SAIC GM	SAIC GM 우한 공장	48만대
난징 골드 드래곤	난징 골드 드래곤 우한 공장	1만대
지리	지리기차 우한 공장	15만대(2021년 말 예정)
혼다동풍	동풍혼다	60만대(현재), 72만대(2020년 예정)
닛산동풍	동풍닛산	30만대(2020년 말 예정)
동풍(승용차)	동풍기차	21만5천대
PSA동풍	동풍PSA	60만대(1공장 30만대, 2공장 15만대, 3공장 15만대)
르노동풍	동풍르노	15만대(현재), 30만대(예정)
JAC	JAC 모터스	2만대
동풍	동풍기차	16만대(예정)
BYD	BYD 우한공장	2천대(현재), 8천대(예정)
닛산동풍	동풍인피니티	2014년부터 동풍닛산 상양공장과 다롄공장에서 생산 중

우한시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은 2019년말 207만7천대이고, 2021년말 311만5천대로 증가할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마크라인즈,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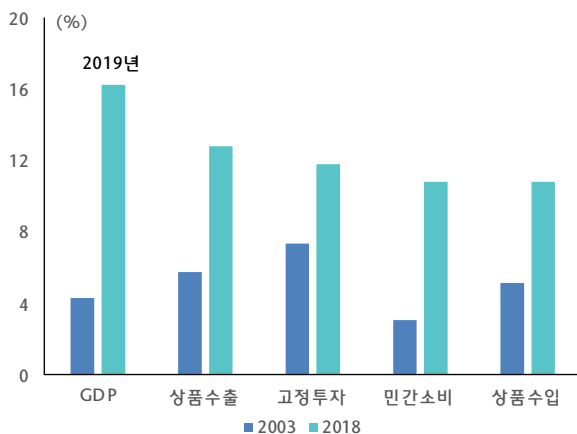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중국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 예상**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2단계 대응 조치’로 후베이성 외에 14개 성과 시에 대해 봉쇄 조치를 취한 상태
  - 후베이, 윈저우, 항저우, 랴오닝, 난징, 닝보, 하얼빈, 푸저우, 쉬저우, 허페이, 산둥, 광둥 등
- 베이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의 복귀를 금지시키면서 2월 2일 기준 약 8백 만명이 귀향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이처럼 중국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주요 거점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자동차 공장 가동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그리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3%였지만, 2019년 16.3%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 비중도 2003년 7.3%에서 2018년 29.2%로 확대<sup>2)</sup>

■ **중국發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 내 시(市)지침에 따라 중국 생산 공장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생산에 필요한 와이어링하네스 공급 중단으로 국내 공장들도 휴업에 들어갔었음
- 국내 완성차업체는 춘절연휴를 감안한 부품 재고만 확보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음<sup>3)</sup>

그림29 |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IMF, 월드뱅크, WTO,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재인용

표12 | 신종 코로나 여파 현대/기아차 휴업 일정

휴업 일정	생산공장 및 생산차종	
현대	5~11일	울산1공장(벨로스터, 코나)
	7~10일	울산2공장(GV80, 팰리세이드, 싼타페, 투싼)
	7~11일	울산3공장(아반떼, i30, 아이오닉, 베뉴)
		울산4공장 1라인(팰리세이드, 그랜드스타렉스) 아산공장(쏘나타, 그랜저)
	4~11일	울산4공장 2라인(포터), 2조부터 울산5공장 1라인(C90, C80, C70)
기아	6~11일	울산5공장 2라인(투싼, 넥쏘) 전주공장(트럭)
	10~11일	전주공장(버스)
	10일	소아리(광명), 화성, 광주 전 공장
	11일 이후	부품수급 등 감안, 각 공장별 협의하여 진행

주 : 2020년 2월 7일 기준  
자료 : 현대/기아차, 연합뉴스(이재윤 기자) 자료 재인용

2)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2020

3) “현대차 공장 오늘 대부분 문 닫는다..기아차도 10일 중단”, 비즈니스플러스, 2020.2.7

- 현대차 울산4공장, 울산5공장은 2월 4일 휴업을 시작으로 대부분 공장 휴업을 2월 11일까지 실시하고, 기아차 소하리, 광주, 화성 공장도 2월 10일에 실시
- 쌍용차는 2월 4~12일 휴업하고, 르노삼성차는 2월 11일~14일 동안 휴무를 실시하며, 한국GM은 재고 사정을 살피고 있는 상황

■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태 장기화시 또 다른 부품에 대한 공급 차질 가능성은 우려됨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공장 가동 재개를 요청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국내 및 동남아 지역에서 부품수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
  - 특히, 와이어링하네스 같은 범용 부품은 이러한 노력으로 충분한 대처가 가능
- 결과적으로 와이어링하네스가 2월 10일 한국에 긴급 공수되면서, 현대/기아차는 11일 울산2공장, 쌍용차는 13일 평택공장, 르노삼성은 17일부터 생산재개에 나설 전망
-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가동률이 낮고, 재고가 높은 상황으로 이번 공장 휴업은 단기적으로는 동사의 재고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와이어링하네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對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상존
- 따라서 향후 국내 완성차업체는 와이어링하네스뿐만 아니라 對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와이어링하네스 생산업체는 유라코퍼레이션, 경신 등 18개사로 파악 

표13 | 와이어링하네스 생산업체 및 주요 납품처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기타
경신	○				
에스모					○
동아전장					
레오니아와이어링시스템코리아			○	○	
부천공업					○
아시아			○		
에코캡					○
유라코퍼레이션	○				
유라하네스	○	○			
이수산업					○
제다하네스				○	
제이에스엔		○			
청우물산					○
타이코에이엠피				○	
태성전장	○	○			
티에이치엔	○				
패커드코리아			○	○	
현대모비스(에어백용)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유진투자증권 자료 재인용



### C31. 조선 : 높은 국산화율로 중국 공장 중단에 따른 영향 미미

※ **Summary** : 조선업은 기자재 국산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현재 국산화율은 약 80~90%로 추정. 이에 조선기자재 수입 규모는 크지 않으며, 수입 국가별 비중에서도 중국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및 독일 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9.8%).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수입 금액이 크지 않거나, 미국/유럽 등에서 대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국 공장 중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Comment** : 높은 국산화율로 국내 생산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 사스 사태 고려 시 선박 발주 심리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조선업은 기자재 국산화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 중국 공장 중단에 따른 영향 미미

- 조선업은 1980년대부터 기자재 국산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산화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현재 국산화율은 80~90% 수준으로 추정(산업은행 자료 참조)
  - 선박의 핵심 기자재인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하나, MAN과 WinGD에 라이선스 비용 지불
- 이러한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중국 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국내 조선업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나, 중국 현지에서 블록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2월 9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
  - 삼성중공업은 중국에 연간 합계 70만톤의 블록생산 능력을 갖춘 영파법인과 영성법인을 두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연간 30만톤 블록생산이 가능한 산둥 유한공사가 있음
- 중국 현지 블록공장 중단 장기화 시에는 생산 일정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대체생산 등 적절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조선기자재 수입 국가에서도 중국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및 독일 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 2019년 기준 조선기자재 합산 수입금액은 11.4억 달러였으며,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미국, 일본, 노르웨이 및 독일 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 조선기자재 합산 수입금액은 HS Code 10단위 기준 총 32개 품목 합산 기준이며, 4단위 기준으로는 7316, 8406-9, 8411, 8413, 8426, 8479, 8487, 9031, 9104가 포함
  - 상위 5개 수입국(비중)은 미국(23.3%), 일본(14.6%), 노르웨이(12.9%), 독일(12.4%), 중국(9.8%)이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9%에서 2019년 9.8%로 소폭 증가
- 한편 조선기자재 수입 품목 중에는 선박용·어업용 기기와 선박 추진용 엔진 및 그 부품의 비중이 각각 52.8%와 29.4%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조선기자재 중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닻과 그 부분품, 데릭 및 선박용·어업용 기기 등

- 중국 수입 비중이 크게 높은 품목은 '닻과 그 부분품'과 '데릭(Derrick)'이나, 그 수입액이 각각 4.6백만 달러와 5십만 달러로 금액이 크지 않으며, 핵심 기자재 또한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에서의 수입이 지연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HS Code 4단위 기준 7316(닻과 그 부분품)과 8426(데릭, 선박에 화물을 싣는 기중기)
- 위 2개 품목 외에도 엔진 부분품과 선박용·어업용 기기 품목의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나, 두 품목 모두 미국, 일본 또는 유럽에서의 대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엔진 부분품 국가별 수입 비중 : 독일 33.5%, 일본 13.5%, 오스트리아 10.5%, 중국 10%
  - 선박용·어업용 기기 국가별 수입 비중 : 미국 35.6%, 노르웨이 18.7%, 중국 12.7%

■ 한편 과거 사스 사태 고려 시 선박 발주 심리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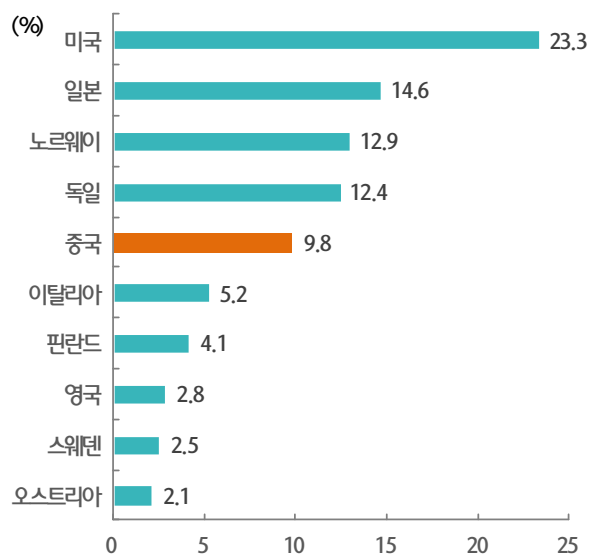
- 과거 사스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2.6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조선업 호황이 지속
  - 2000~2005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백만CGT) : 26.5 → 18.7 → 20.7 → 42.6 → 45.6
- 따라서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운 운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도 선박 발주 심리 자체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조선소 생산 차질 장기화 시 한국 조선소의 반사이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표14 | 조선기자재 독립 HS Code

HS Code		세부품목
4단위	10단위	
7316	-001000, -002000	닻과 그 부분품
8406	-103000, -109000, -111000, -112000, -113000, -119000, -901000	선박추진용 터빈
8407	-210000, -290000	선박추진용 엔진 모터
8408	-101000, -102000, -103000, -909010	디젤엔진
8409	-912000, -993010, -993020, -993030	엔진 부분품
8411	-119010, -129010, -219010, -229010, -819010, -829010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가스터빈
8413	-303000	펌프
8426	-991000	데릭(derrick)
8479	-899020, -909070	선박용 기기
8487	-100000	추진기 및 블레이드
9031	-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9104	-004000	계기

주 : 총 32개로 명확히 조선기자재로 분류된 것만 함  
 자료 :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30 | 조선기자재 수입 국가별 비중



주 : 2019년 총 32개 HS Code 합산(HS Code별 수입국가 Top 10 합산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G. 종합유통 : 매장 휴업, 입출국객 감소, 매장 방문 자제 등으로 매출 손실 불가피

※ **Summary** :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당 매출 규모가 큰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순으로 피해가 예상됨. 해외 입출국 감소와 중국 소비 위축은 면세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매장 방문 자제에 따라 다중집합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 손실과 함께 대인 접촉이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몰의 수혜 예상

※ **Comment** : 면세점 성장률 둔화로 인한 중소 면세점의 리스크 상승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 손실에 따른 부실 점포 구조조정 촉진이 예상되며, 장기화될 경우 보다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매장 임시 휴업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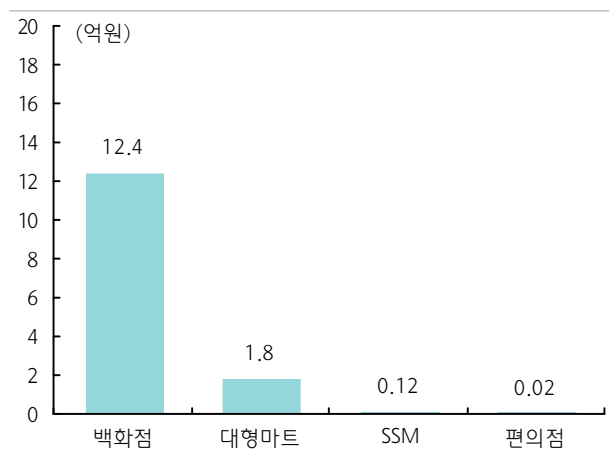
- 소매유통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매장 임시 휴업으로 확진자 방문 매장 휴업 및 본사 폐쇄 등 전염 우려에 따른 영업 차질 발생
  - 이마트 부천점, AK플라자 수원점, 이마트 군산점, 현대아울렛 송도점, 롯데백화점 본점 등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매장 임시 휴업을 결정
  - GS홈쇼핑은 20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2월 6일부터 41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본사 사옥을 폐쇄하고 홈쇼핑 방송도 모두 재방송으로 진행
- 외국인 방문이 많은 면세점의 경우, 확진자 방문 매장의 임시 휴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업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면서 매출 손실 불가피
  - 신라 서울점, 제주점과 롯데 제주점은 확진자 방문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임시 휴업
  - 롯데, 신세계, 현대면세점, 신라아이파크 등은 일 2~3시간씩 영업시간 단축 운영

표15 |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사례

업태	휴업 매장
면세점	신라 서울점, 신라 제주점, 롯데 제주점
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 AK플라자 수원점
대형마트	이마트 부천점, 이마트 군산점
아울렛	현대아울렛 송도점
편의점	동대구역, 서울역 편의점
본사	CS홈쇼핑 본사

자료 : 언론자료, 각 사

그림31 | 업태별 매장당 일일 평균 판매액



주 : 2019년 월평균 매출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 임시 휴업을 시행할 경우 점포당 일 매출 규모가 큰 면세점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확산으로 휴업 매장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위권 시내 면세점의 경우 일 평균 매출 규모는 약 80~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백화점, 대형마트의 일 평균 매출액은 각각 약 12억원, 2억원 수준이며 수도권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각각 20~30억원, 3~4억원 수준을 형성
- 휴업 매장의 경우, 방역 이후 재개장을 하더라도 전염 우려로 인해 소비자 방문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액 피해가 지속될 수 있음

■ 외국인 입국 및 내국인 출국 감소, 중국 소비 위축은 면세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코로나 확산으로 자체적인 여행 자제 및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외국인 입국이 위축되면서 매출의 약 8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면세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
  - 면세점 외국인 매출 비중 : 2017년 73.6%, 2018년 79.1%, 2019년 83.7%
- 지난 전염병 당시 외국인 입국객은 발병 직후부터 2~3개월 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사스 시기(2003년)에는 5~8개월 간 감소세가 지속된 바 있음
  - 사스 당시(2003년) 입국객 증감률(YoY) : 3월 -12.9%, 4월 -32.9%, 5월 -44.4%
  - 메르스 당시(2015년) 입국객 증감률(YoY) : 5월 8.0%, 6월 -40.2%, 7월 52.7%
- 현재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인 중국인 입국 제한 추세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입국객 감소폭 확대 가능
  - 국가별 입국 제한(2월 4일 현재) : 일정 기간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국가 (미국, 북한, 과테말라 등 26개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국가(한국, 일본 등 4개국)

그림32 | 국내 면세점 내외국인 매출 비중

연도	외국인 (%)	내국인 (%)
2017	73.6	26.4
2018	79.1	20.9
2019	83.7	16.3

자료 : 한국면세점협회

그림33 | 과거 전염병 발생 시 외국인 입국객 증감률 추이

월	사스(2003.03) (%)	메르스(2015.05) (%)
-1M	0	10
0M	-10	5
1M	-30	-40
2M	-45	-55
3M	-20	-10
4M	-10	5
5M	-5	5
6M	-10	5
7M	-10	5
8M	5	15
9M	10	10
10M	15	15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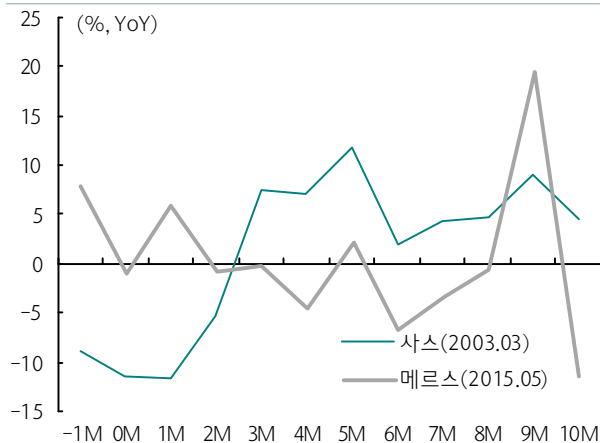
36 Hana Bank Hana Institute of Finance

- 또한, 해외 여행 자제에 따른 내국인 출국객 감소로 면세점 매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내국인 소비 또한 위축될 수 있음
  - 사스(2003년) 직후 약 3개월 간, 메르스(2015년) 이후 2~8개월 간 내국인 출국객 감소
- 한국 면세품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면서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요 또한 위축될 것으로 판단

■ 전염 우려에 따른 매장 방문 기피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매장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매장 방문이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물은 수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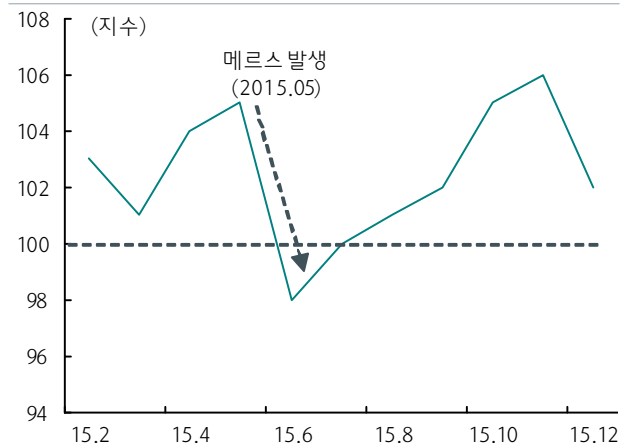
- 전염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자제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예상되며 대인 접촉 필요 여부에 따라 온오프라인 업태별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
  - 2015년, 5월까지 기준점(100)을 상회했으나 5월 메르스 발생 이후 6월에는 98로 하락

그림34 | 과거 전염병 발생 시 내국인 출국객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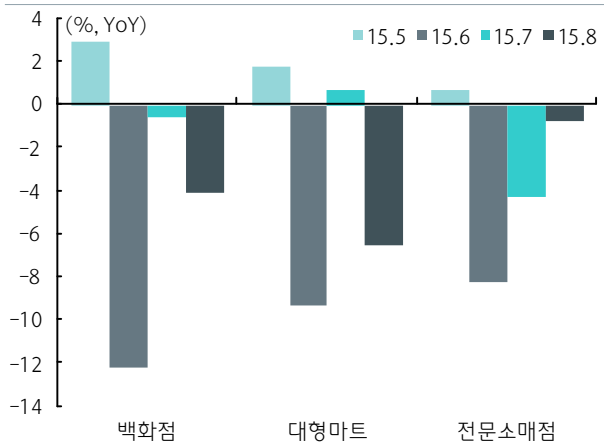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35 | 메르스 당시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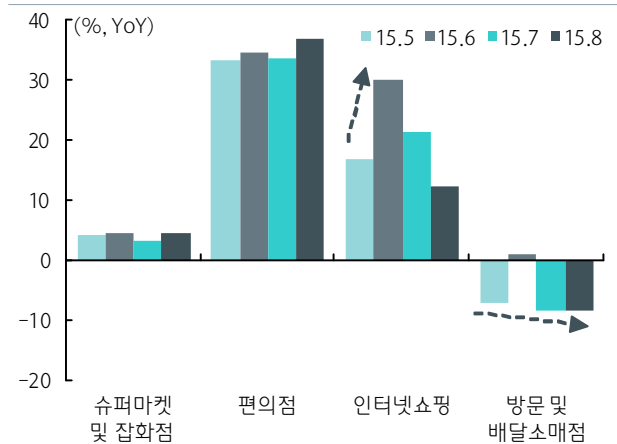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36 | 메르스 당시 다중집합 업태의 판매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그림37 | 메르스 당시 소형점포, 무점포소매 판매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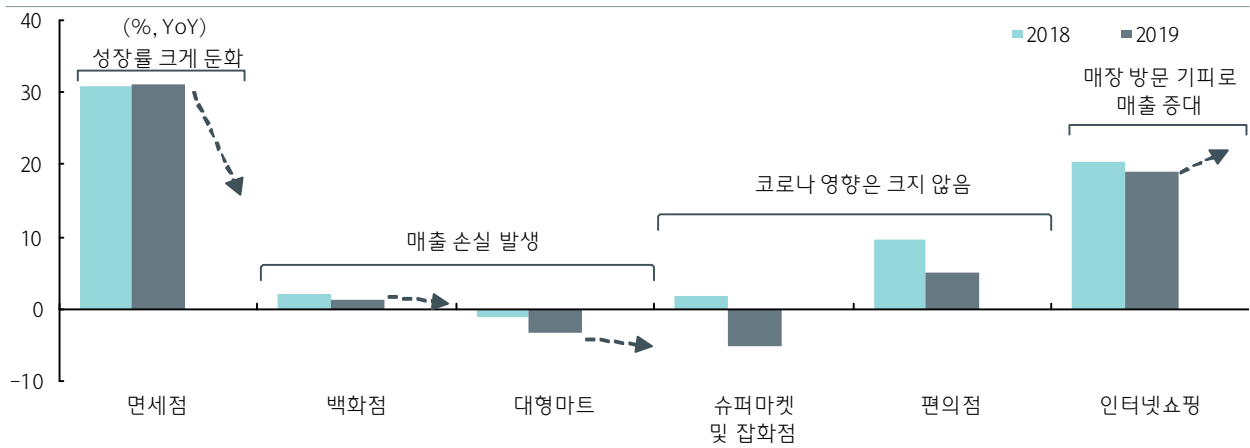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다중집합시설 업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매장 방문 감소에 따른 매출 손실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편의점, 슈퍼마켓 등 근거리 소형 매장 업태의 경우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
- 매장 방문이 필요 없는 무점포 소매업 중 온라인쇼핑몰이 오프라인 위축의 반대급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지만 대인 접촉이 필요한 방문 소매업은 위축될 수 있음
- 메르스 직후(2015년 6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전통시장 포함)의 판매액 증감률(YoY)은 각각 -12.2%, -9.3%, -8.2%로 크게 위축된 바 있음
  - 반면,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각각 4.7%, 34.6%를 성장하며 발생 전과 유사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은 5월 17.0% 대비 13.1%p 증가한 30.1% 성장(2015년 6월 기준)
  - 방문 및 배달소매업은 동기간(2015년 6월) 1.2%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7,8월 각각 -8.2%, -8.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업태별로 면세점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다소 손실이 발생할 전망

- 소매유통업 업태별 영향은 점포 당 매출액이 크고 해외 입출국객 변화에 민감한 면세점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또한 다소의 매출 손실 발생 가능
  - 온라인 쇼핑몰은 전염병에 의한 외출 자제로 매출 수혜가 예상됨
- 외국인 매출액 급증이 최근 약 30%에 이르는 면세점 고성장을 야기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 2019년 면세점 판매액 성장률 : 외국인 38.7%, 내국인 2.2%, 합계 31.1%
  - 메르스(2015년) 당시 면세점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21.5%의 절반 수준인 10.7%로 둔화

그림38 | 신종 코로나로 인한 소매유통업 업태별 영향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관광객 대비 영향이 적은 직업적 다이공 수요 또한 입국 제한 확대 및 수요 품목 변화로 위축될 수 있으며, 과거 대비 외국인 매출 비중 증가로 변동성 또한 확대될 전망
  - 입국 금지 대상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다이공 입국도 제한될 수 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다이공의 주요 구매 품목이 화장품에서 마스크로 대체되면서 면세점 수요 감소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 발생하겠으나 회복 이후의 이연 소비로 인해 장기적인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메르스 당시(2015년) 대형마트 및 백화점은 6월 감소 이후 9월과 10월에 이연 소비 시현으로 각각 11.9%, 1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으로는 1.0%, 0.6% 감소에 그침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소 면세점의 리스크가 상승하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부실 점포 구조 조정이 촉진될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세부 업체별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 면세점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중소 면세점 실적 악화와 폐업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중소 면세점 업체들의 부실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
  - 2019년~2020년 한화, 두산, 탑시티 면세점이 실적 악화로 폐업
-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온라인으로의 소비자 이탈과 점포 간 양극화로 인해 추진될 계획이었던 부실 점포의 구조 조정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음
- 만약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매 유통업 전반적인 침체가 나타날 수 있어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세부 업체별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해외명품 및 온라인 브랜드로의 수요 이탈로 고전 중인 국내 중저가 패션 브랜드와 멀티샵 위주의 시장 재편으로 부실화된 화장품 원브랜드샵을 중심으로 추가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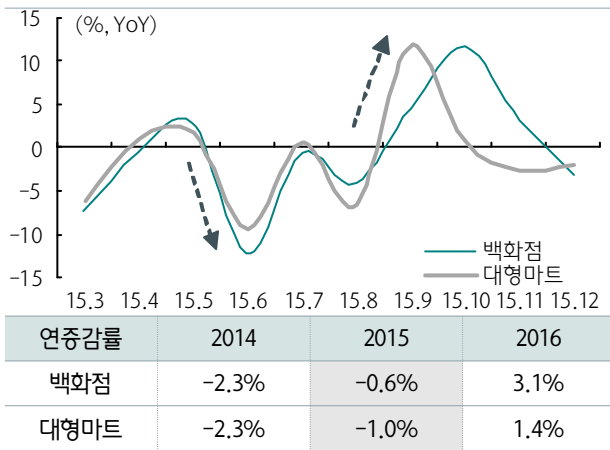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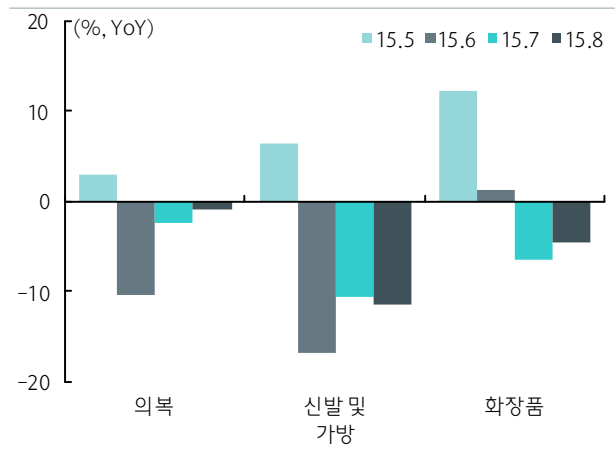
※ 전염병 확산 시 의복, 잡화, 화장품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 확대 예상 

그림39 | 2015년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40 | 메르스 당시 의복, 잡화, 화장품 판매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155. 호텔업 : 객실 판매 및 부대시설 이용 감소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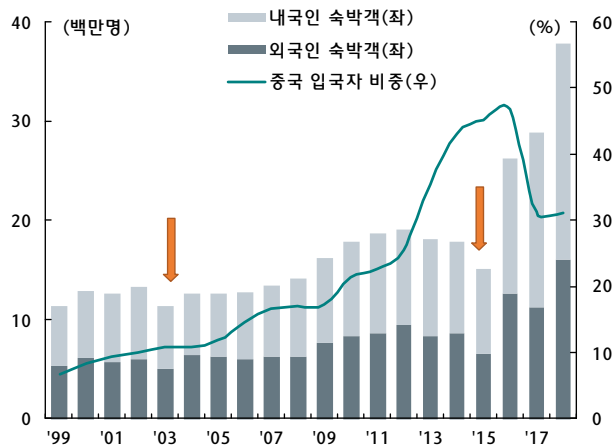
※ **Summary** :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와 유사한 상황인 사스 및 메르스 확산 시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숙박객 중심으로 호텔 숙박객 감소가 전망되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내국인 숙박객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감염 우려 확대로 단체 모임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부대시설 수입이 총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됨

※ **Comment** : 공급과잉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총 수입의 대부분을 객실 수입으로 충당하는 3성급 이하 중소형 호텔의 부실 발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호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객실 판매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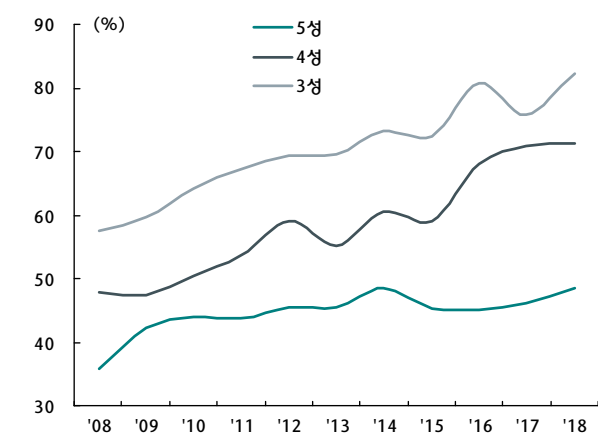
- 사스 및 메르스가 확산되었던 시기 외국인을 중심으로 관광호텔 숙박객이 크게 감소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외국인 중심으로 숙박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03년(사스) 숙박객 변동률(YoY) : 내국인 -12.9%, 외국인 -16.3%
  - '15년(메르스) 숙박객 변동률(YoY) : 내국인 -7.4%, 외국인 -24.1%
- 특히, 중국은 '19년 한해 602만명이 방한하고,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34.4%)을 차지하는 국가로 호텔업계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됨
  - 중국인 관광객 증감(만명) : 180('14년), -14.8('15년), 208.4('16년), 62.0('18년)
- 최근 호텔 수입 중 객실 판매 수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숙박객 감소 뿐만 아니라 호캉스 쪽으로 대표되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어 호텔업계의 피해는 과거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그림41 | 관광호텔 숙박객 추이 및 중국인 입국자 비중



자료 : 호텔업 운영현황, 입국관광통계

그림42 | 호텔 등급별 객실 수입 비중



자료 : 호텔업 운영현황



■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내국인 부대시설 이용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

- 전염성이 높아 내국인들의 단체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사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어 호텔 부대시설 매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내국인 부대시설 매출액 비중 : 84.4%('16년) → 84.7%('17년) → 83.1%('18년)
- 메르스 충격이 있던 '15년 부대시설 매출 감소폭(전년대비 11.1%),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최근 3년 연평균 0.9%) 등을 고려하면 감소폭은 상당한 수준일 전망
- 5성급 호텔의 경우 객실 판매 수입과 부대시설의 매출이 5: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객실 판매 영향은 하위 등급 대비 적을 것이나 부대시설 매출 감소 충격은 더 클 전망

■ 저하된 호텔 경영지표가 회복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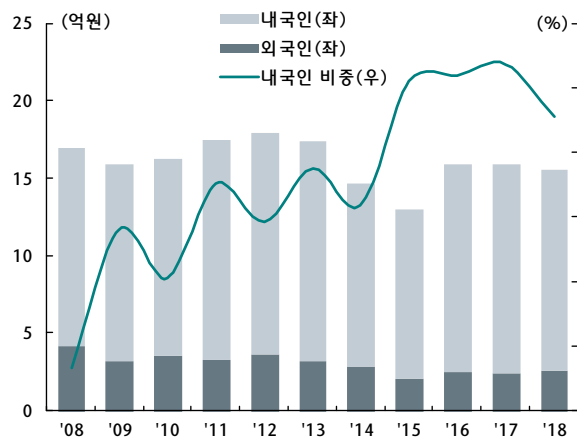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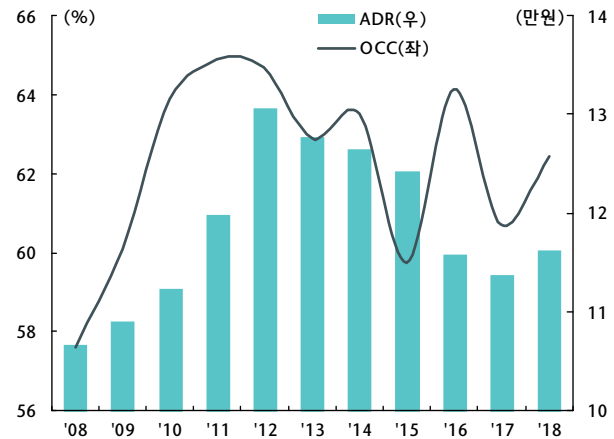
- 호텔업계는 규제 완화 이후 공급물량의 급증 및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전반적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놓여 있으며 단기간 해소도 어려운 상황임
- '18년말 현재 전국 객실 수는 12.6만실이며 호텔 관련 규제완화('12년)로 인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된 '14년 이후 OCC 및 ADR은 규제 완화 이전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임
  - 연평균 호텔 객실 수 증가율 : 7.1%('08~'13년) → 9.8%('14~'18년)
- 중국 정부의 단체 여행 통제, 우리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혜택 한시 철회 및 우한 지역 방문자에 대한 입국거부가 실시되고 있어 과거보다 단기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내 질병 확산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객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3성 이하 호텔의 부실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43 | 부대시설 판매액 추이



주 : 5성~3성급 호텔 실적 합산  
자료: 호텔업 운영현황

그림44 | 관광호텔 OCC, ADR 추이



주: OCC(Occupancy; 객실 점유율),  
ADR(Average Daily Room Rate; 일 평균 객실 객단가)  
자료: 호텔업 운영현황

## I. 운수 항공운송 : 여행 수요 감소에 따른 항공사 및 여행사 악영향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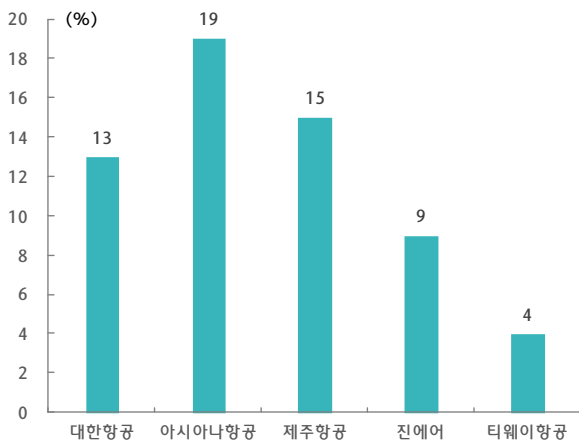
※ **Summary** : 중국 노선 운항 중단 또는 감편으로 국내 항공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중국 노선 매출 비중에 따라 항공사별 영향은 차이. 중국 노선 외 여행 자체에 대한 기피로 전 노선에서 여행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항공 화물 또한 단기 침체 전망. 과거 사스 사태 고려 시 수요 감소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사태 장기화 시 업계 추가 구조조정 예상

※ **Comment** : 일본 불매운동, 홍콩 정치 불안,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 항공업계의 악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항공사 간의 경쟁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어 항공업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필요

### ■ 중국 노선 운항 중단 또는 감편으로 국내 항공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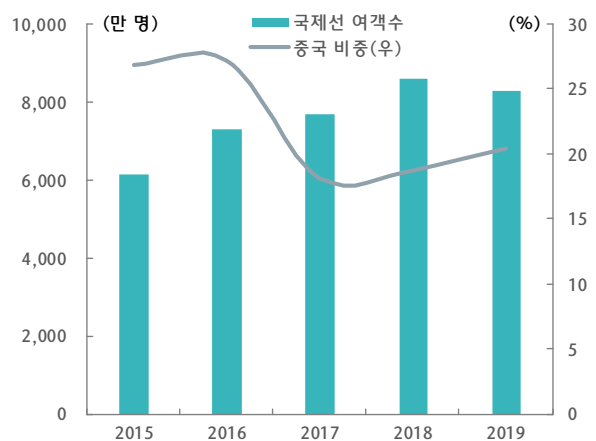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운항 중단 및 감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총 94개의 노선 중 58개 노선은 운항 중단, 25개 노선은 감편
  - ※ 2월 5일 국내 항공 8개사 중국 노선 기준이며, 동계 운휴 노선은 제외(언론보도 참조)
  - 주요 항공사별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은 대한항공 13%, 아시아나항공 19%, 제주항공 15%, 진에어 9%, 티웨이항공 4%로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 중국 여행객수는 2016년 1,986만명으로 Peak를 기록 후 중국의 사드 제재조치로 2017년에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1,394만명을 기록하였지만, 2018년 이후 회복 중
- 국내 전체 국제선 여객수에서 중국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7.2%에서 2017년 18.1%로 감소 후 2018년 18.7%, 2019년(1~11월 누적 기준) 20.4%로 다시 증가
  - 지역별 여객수 비중 : 아시아 39.9%, 일본 21.4%, 중국 20.4%, 유럽 7.4%, 미주 6.1%

그림45 | 국내 주요 항공사별 중국 노선 매출 비중



주 : 2019년 3분기 기준  
자료 : 각 사 IR

그림46 | 對中 항공 여객 비중



주 : 2019년은 1~11월 누적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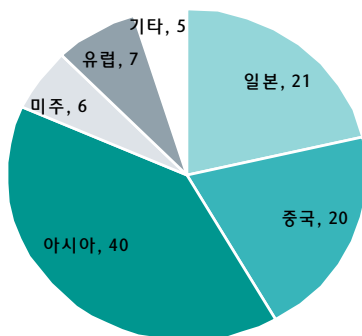
- 중국 노선 외에도 여행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전 노선에서 단기적인 여행객 감소 우려
  - 과거 사스 사태 고려 시 중국 노선 외에도 여행 자체에 대한 기피로 전체 국제선 여객수의 감소가 우려되며,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항공 화물 물동량도 단기 침체 예상
    -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인천공항 여객수는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가량 감소 후 회복
    - 2003년 2~9월 인천공항 여객수 증감(YoY) : 2월 +6.2% → 3월 -9.5% → 4월 -37.0% → 5월 -37.4% → 6월 -18.0% → 7월 -5.9% → 8월 -1.1% → 9월 +2.7%
    - 2019년 11월 누적 기준 항공화물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여객과 비슷
  - 한편 일본 불매운동, 홍콩 정치 불안에 이어 중국 노선마저 수요 감소로 항공사들의 단거리 노선은 동남아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동남아 노선은 공급 과잉이 우려됨
  
- 실적 악화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사태 장기화 시에는 업계 추가 구조조정 예상
  - 항공 수요 감소로 인한 국내 항공사들의 단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사스 사태 등 과거 일회성 이벤트에 따른 수요 감소가 단기간에 그쳤던 것 감안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멸 이후 항공 수요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995년 이후 국제선 여객수가 감소했던 시기는 1998년, 2003년, 2008~2009년 3번뿐이며, LCC 확대로 2010년 이후 여행객수 크게 증가('10년 4,006만명 → '18년 8,279만명)
  - 단기적 수요 충격 및 저비용항공사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피인수되고, 제주항공이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등 업계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업계 구조조정 또한 배재할 수 없는 상황 

그림47 | 국제선 항공 여객 지역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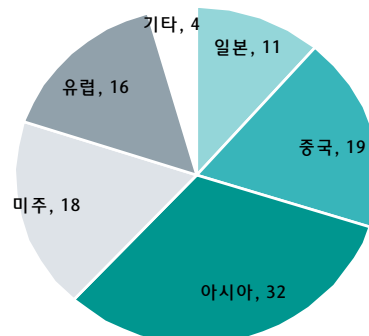
(%)



주 : 2019년 1~11월 누적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48 | 국제선 항공 화물 지역별 점유율

(%)



주 : 2019년 1~11월 누적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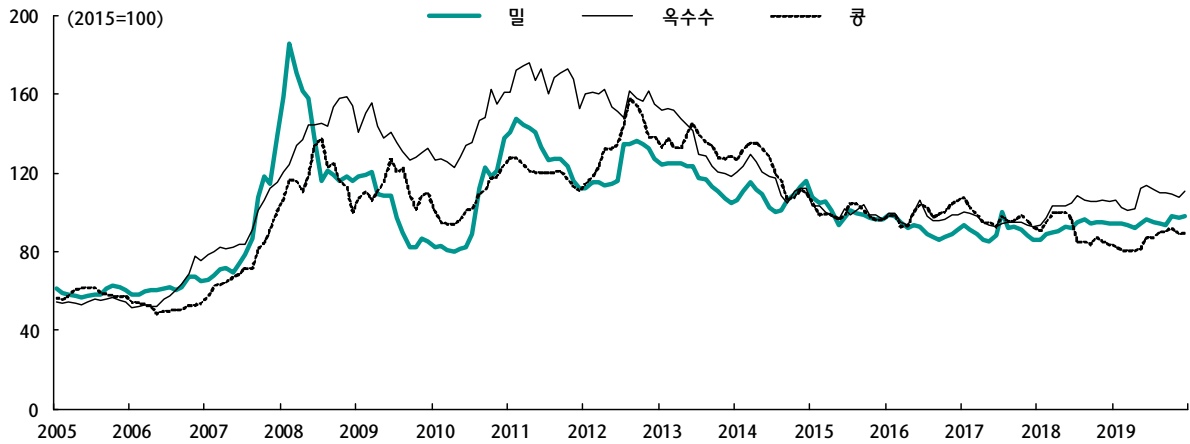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49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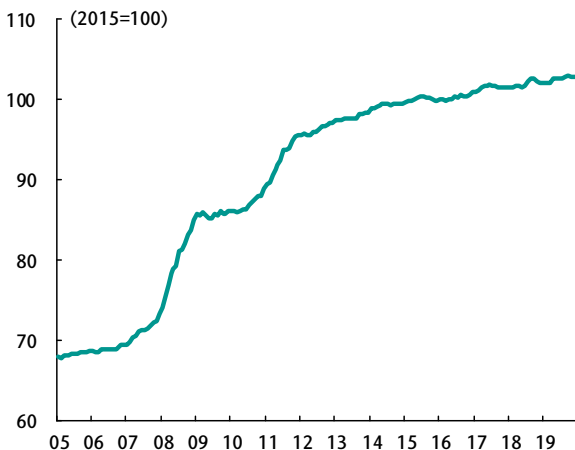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국제 곡물가격은 경기 둔화로 하향 안정추세가 예상되나, 단기 수급 이슈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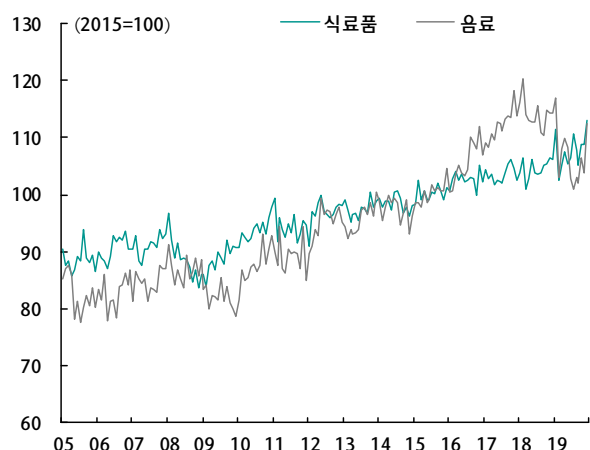
- 기후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소비량 제한에 따른 수급 안정, 달러 강세에 따른 투기 수요 후퇴로 국제 곡물가격은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2019년 말 소폭 상승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9년 10월 이후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하였고, 12월 181.7포인트로 2014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품목별로는 유지류, 설탕, 곡물이 상승했고, 육류는 안정 추세

그림 50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51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0년 내수 경기 둔화로 제품가격 인상 제한적

- 2019년 하반기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내수 경기 둔화로 식료품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다. 다만, 신제품 출시 등으로 특정 품목의 판가 인상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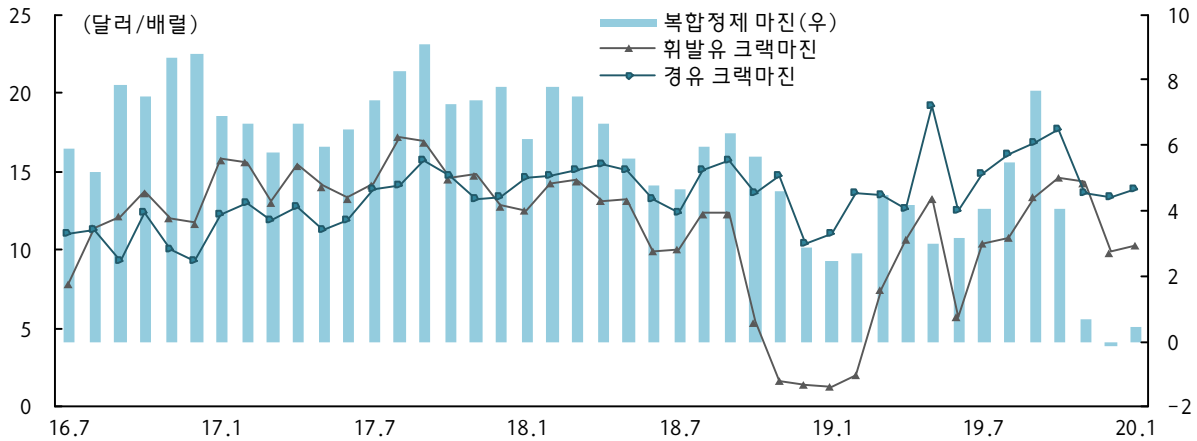
■ 2019년 출하지수, 뚜렷한 추세 없이 등락 반복

- 2019년 식료품과 음료 출하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4분기 들어서는 식료품과 음료 출하 모두 소폭 상승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2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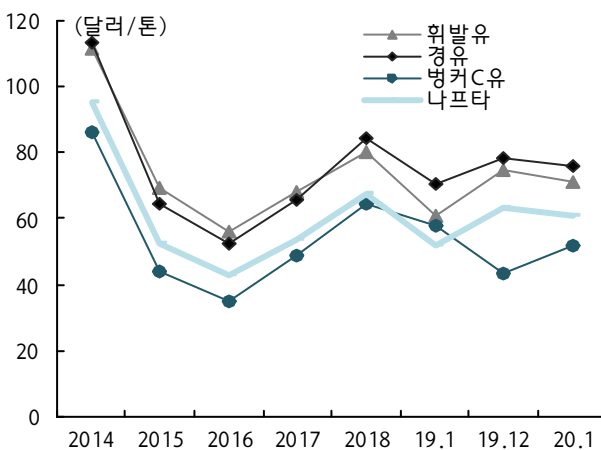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1월 유가 강세, 석유 소비 감소로 정제마진 약세가 이어짐

- 최근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미·중 무역분쟁 합의 등으로 유가가 상승했으나,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둔화와 세계 정유제품 생산 확대로 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복합정제마진은 약세 지속 중
- 1월 기준 휘발유와 경유의 크랙마진은 각각 10.0\$/bbl, 13.9\$/bbl로 10월 대비 20~30% 하락
-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2월 현재 유가 하락세 지속 중이며 주요 제품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약세가 예상되고 있어 정제마진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

그림53 | 석유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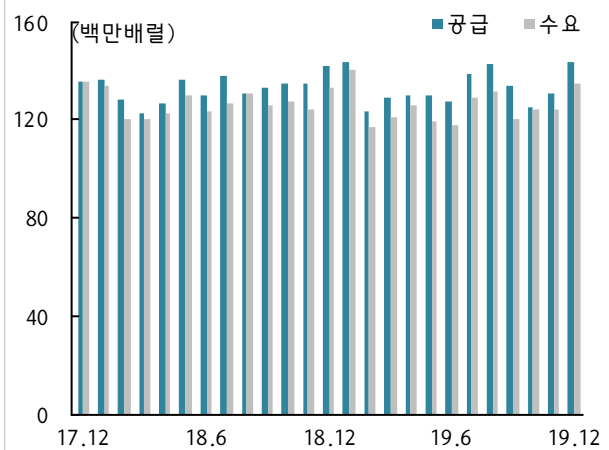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연초 대비 주요 제품 가격은 상승 전환

- 유가 하락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약세는 지속
- 그러나 IMO 2020 규제 효과 선반영, 유가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주요 석유제품 가격은 소폭 상승

그림54 | 국내 석유정제품 수급 추이



자료: 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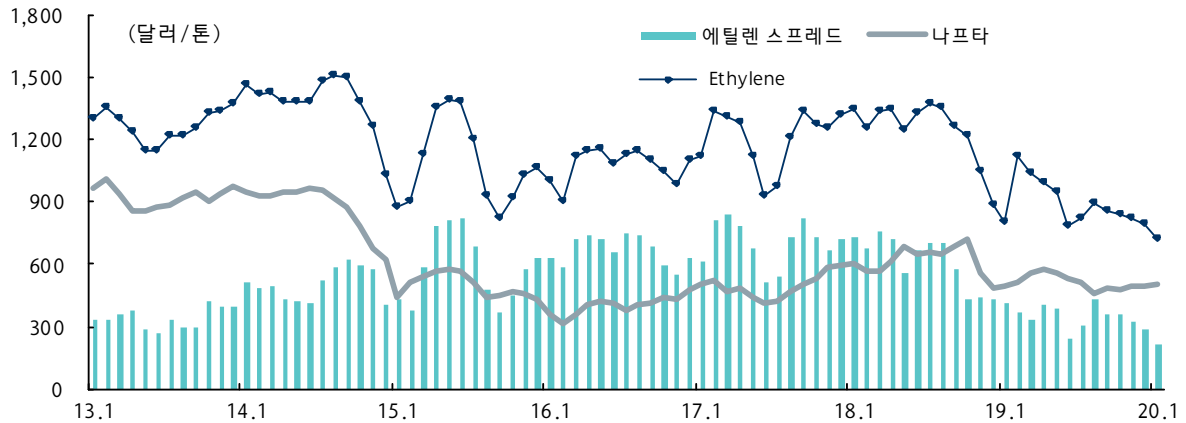
■ 석유제품 소비 부진으로 공급과잉 상황 지속

-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 내수, 수출 부진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면서 수급 부진 지속 중
- '19년 12월(1~12월 누계)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동기비 0.2% 증가한 반면, 수요는 약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석유화학(C2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55 | 석유화학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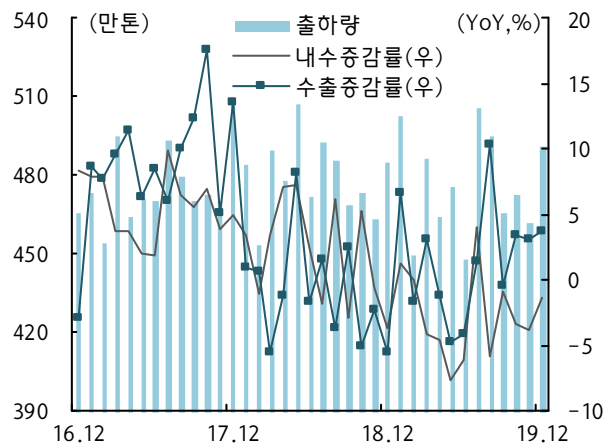


자료: Cischem, 한국무역협회

■ 수요 둔화에 따른 에틸렌 가격 약세로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 당 200달러 내외로 하락

- 1월 국제 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미중 무역분쟁 합의 등으로 상승하면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강세를 보였으나 에틸렌 수요 감소로 에틸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월 평균 톤 당 710달러까지 하락
- 이에 따라 석유화학 수익성 지표인 나프타 대비 에틸렌 가격은 손익분기점(톤 당 400~500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톤 당 200달러 수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림 56 | 화학제품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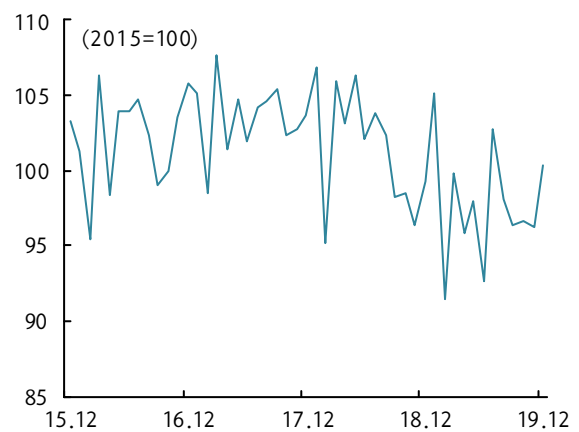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석유화학 제품 수급은 일시적 회복 국면

-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던 석유화학 내수는 12월 감소세가 소폭 완화
- 수출은 인도 및 중국 수출 호조로 지난달에 이어 12월에도 전년동기비 약 4% 증가세가 이어짐

그림 57 | 화학제품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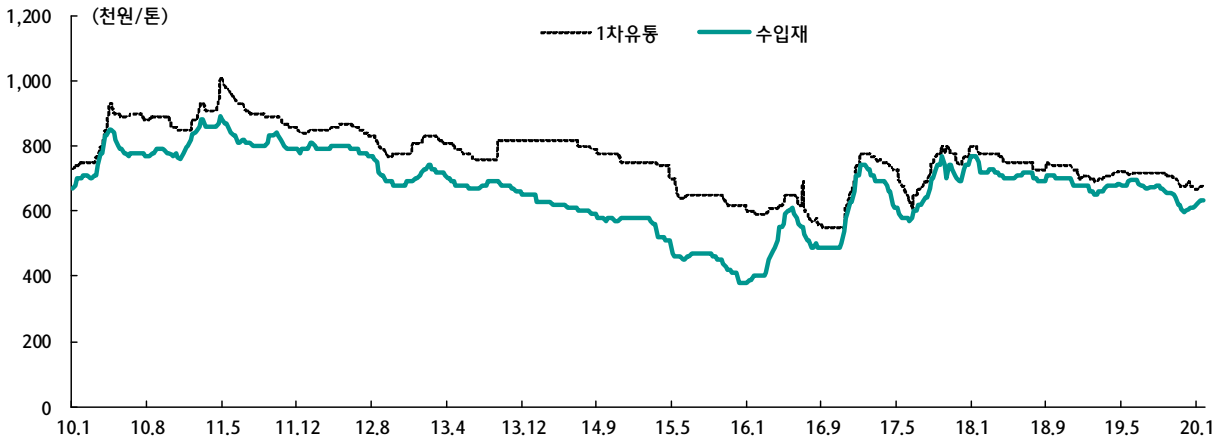
■ 국내외 수급이 소폭 개선되면서 가동률 개선

- 내수,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가동률 소폭 개선
- '19년 12월 가동률 지수는 100.1(2015=100)로 기준치에 도달했으며 전년동기비로도 1.1p 상승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8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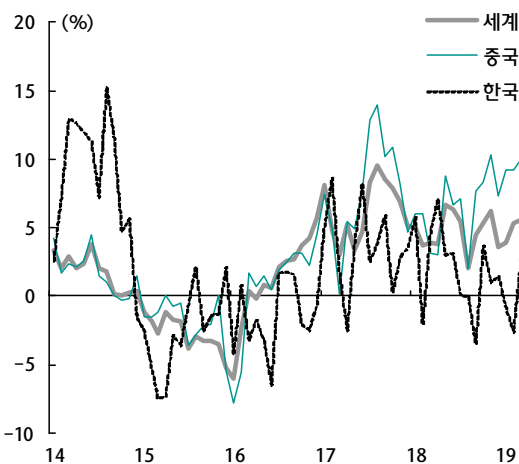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2020년 초 中 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제 금속 선물가격이 급락. 다만 국내 철강 유통가격은 소폭 상승

- 2018년부터 미·중 무역분쟁, 산업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철강가격이 추세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최근 금속가격의 하방 압력이 확대
- 2020년 중국 철강 유통가격은 춘절 연휴 연장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2주간 글로벌 금속 선물가격이 급락하는 모습. 다만 국내 철강 유통가격은 설 연휴 이후 철강기업의 가격 인상 의지가 반영되면서 소폭 반등

그림59 | 주요국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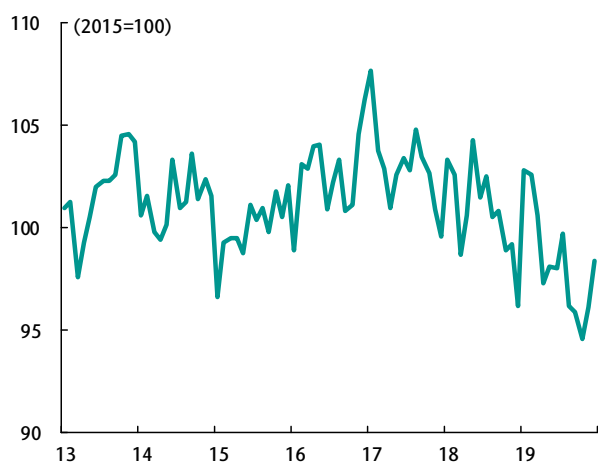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2019년 전 세계 조강 생산량 3.4% 증가

- 2019년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조강 생산량이 전년대비 8.3% 증가 하면서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이 전년대비 3.4% 증가

그림60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11월 금속 출하지수가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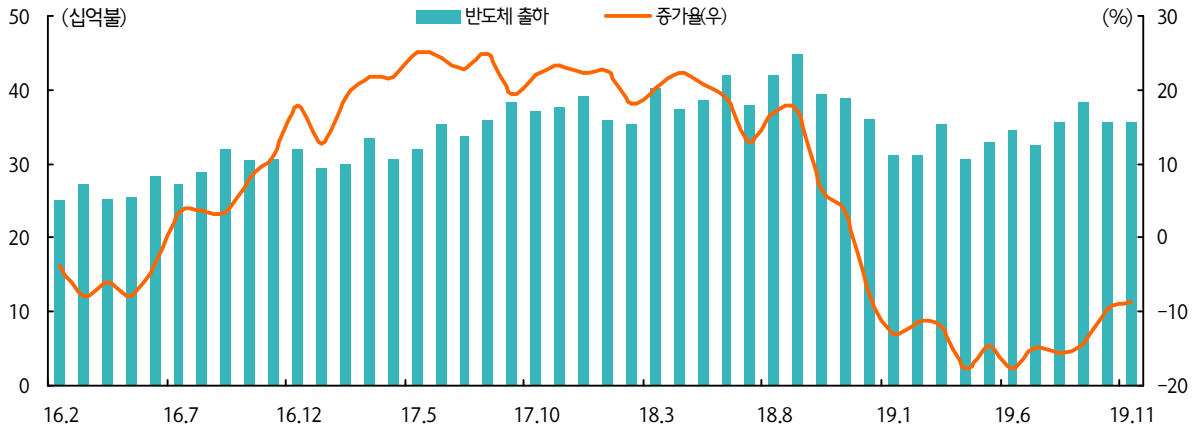
- 건설 및 자동차 경기의 둔화로 국내 철강수요가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 말 2개월(11~12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추세전환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



반도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61 | 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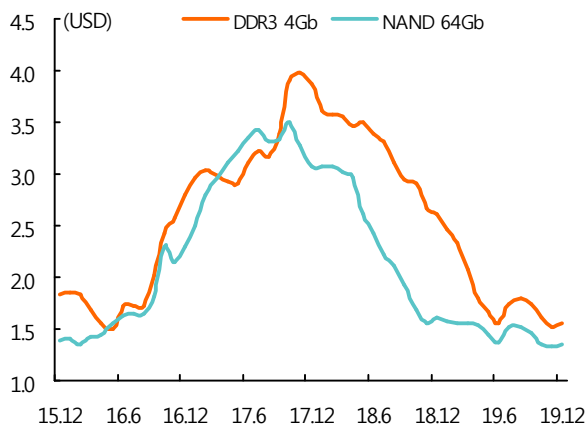


자료: WSTS

■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가격 하락으로 출하 감소 지속되나 감소율은 한 자릿수로 축소

- 전 세계 반도체 출하는 가격효과로 인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출하 감소율은 한 자릿수로 축소
- 11월 누적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8년을 제외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 ('16년 대비 21.7%, '17년 대비 0.1% 증가)

그림 62 | 메모리 가격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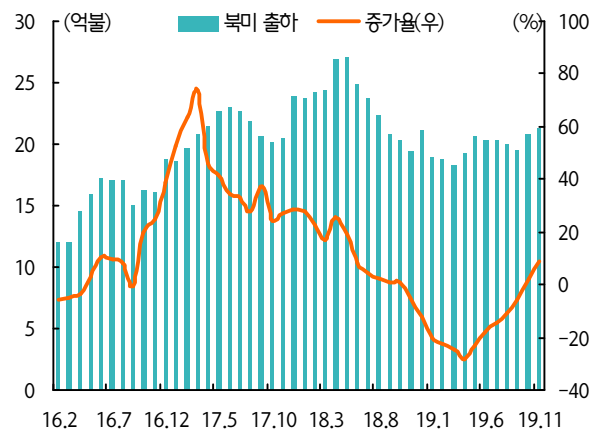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현물가격 상승 전환되며 기대치 상승

- DDR3 4Gb, DDR4 4Gb/8Gb 등 DRAM 현물가격 상승
- TLC 64Gb/128Gb 등 주요 NAND 현물가격 상승
- DRAM/NAND 고정거래가격 하락과 보합 혼재

그림 63 | 복미 반도체 장비 출하



자료: SE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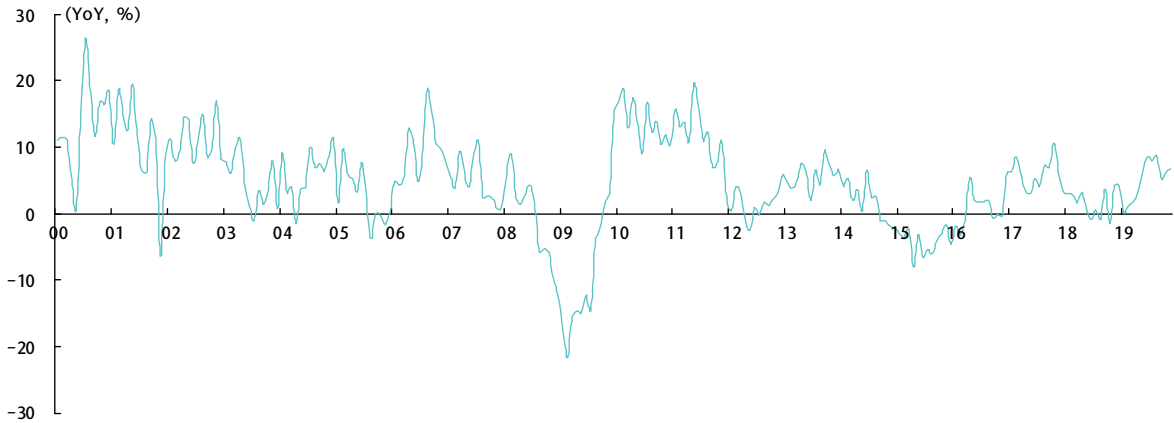
■ 복미 반도체 장비 출하 2개월 연속 증가세

- 복미 반도체장비 출하, 11개월 감소 후 플러스 전환
- 2019년 10~11월 연속 플러스 기록
- 복미 반도체 출하는 반도체 시장을 6개월 정도 선행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64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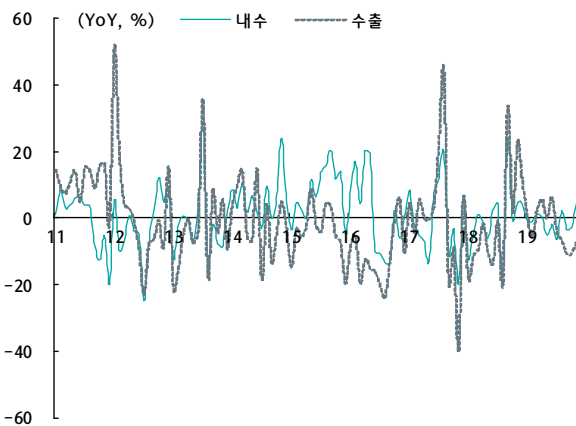


자료: 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12월은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의 동반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수출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6.7% 상승

- 12월 수출단가는 대당 1만 6,85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모두 감소하였지만, 수출물량이 수출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단가는 상승

그림65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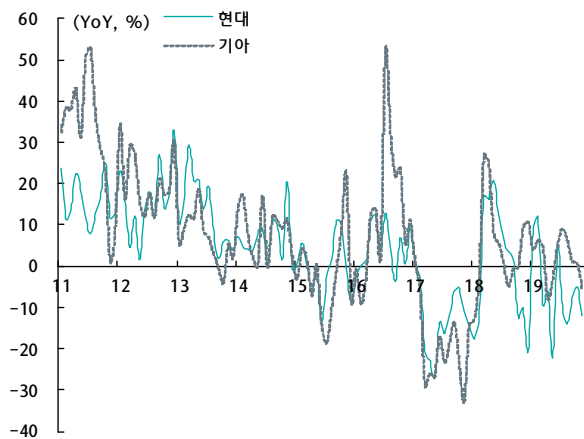
자료: KAMA

■ 12월 내수는 양호, 반면 수출은 부진

- '19년 12월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구매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9%를 나타냄
- '19년 12월 수출은 수요 부진, 본사의 수출 물량 배정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를 나타냄

Hana Bank

그림66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 12월 해외생산은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

- '19년 12월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29.5만 여대로 전월대비 -16.9%, 전년동월대비 -10.1%로 나타남
- '17년 12월 대비 역시 -14.5%를 나타내며, 전전년동기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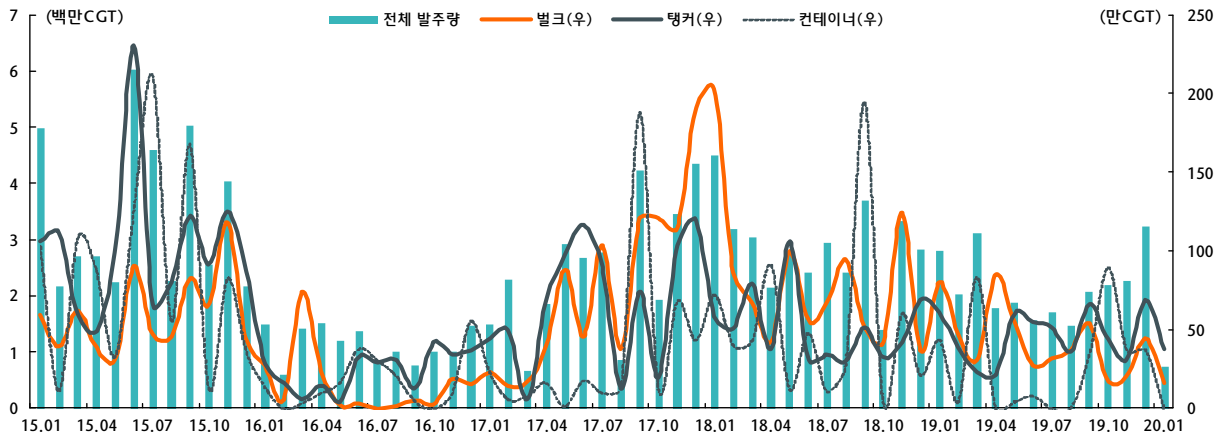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67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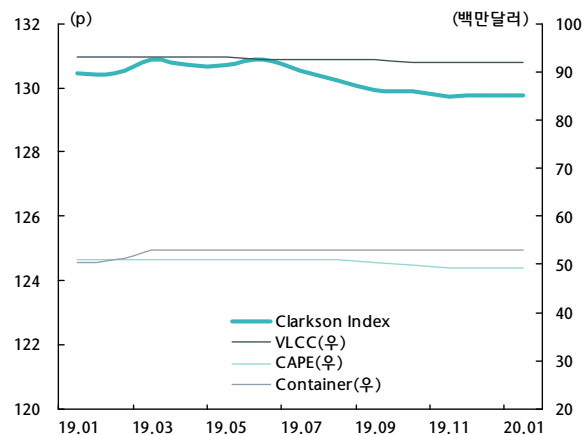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발주는 전무

- 1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약 75만CGT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76.9% 감소. 벌크선 및 탱커선 발주가 각각 전월대비 63.9%와 45.7% 감소하였으며, 컨테이너선 발주는 전무(참고로 LNG선은 89% 감소)
- 1월 주요 선종별 발주 척수(총 36척) : 벌크선 6척, 탱커선 5척, 제철선 2척, 케미컬선 8척, LNG선 2척, 크루즈선 4척 등

그림 68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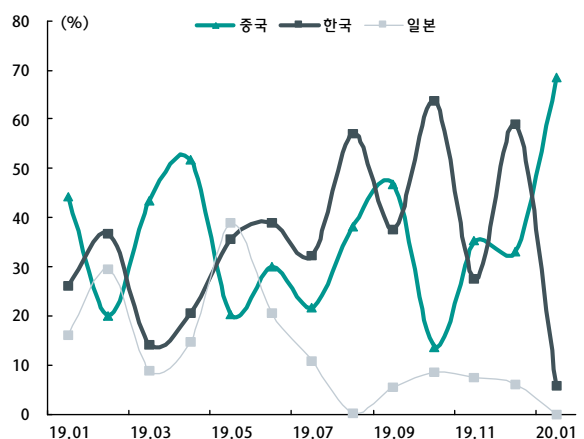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30p로 보합

- 1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30p를 기록하여 보합세(2018년 9월 이후 130~131p 수준을 유지)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 Cape선 \$50M, VLCC \$92M, 4,800TEU 컨선 \$53M, 174K CBM LNG선 \$186M

그림 69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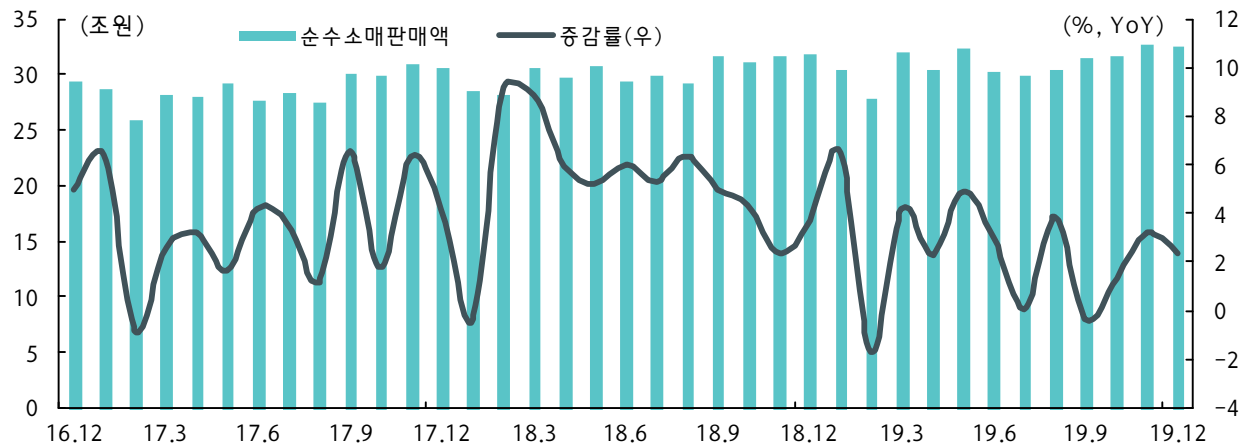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중국이 1위

- 1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중국이 벌크선 및 탱커선을 다수 수주한데 힘입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 (한·중·일 수주점유율 : 한국 6%, 중국 69%, 일본 0%)
- 한국 업체별 수주 : 현대삼호 1척, 현대 비나신 4척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70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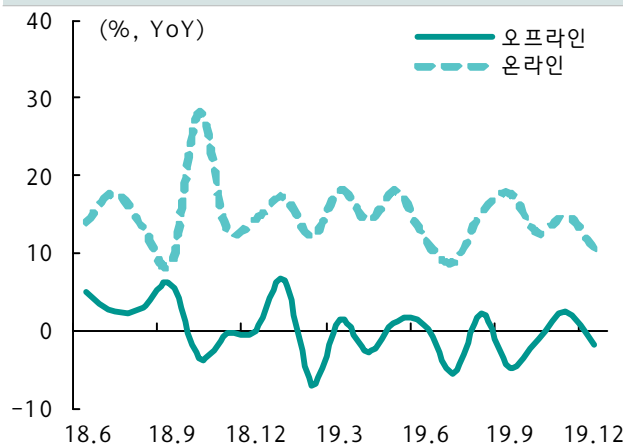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회복세를 보이던 순수소매판매액은 계절상품 판매 저조로 성장을 둔화**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 증감률은 10월, 11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1.5%, 3.2% 증가
- 12월 연말 특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온에 의한 계절상품 판매 저조로 성장을 둔화되며 2.4% 기록

**그림71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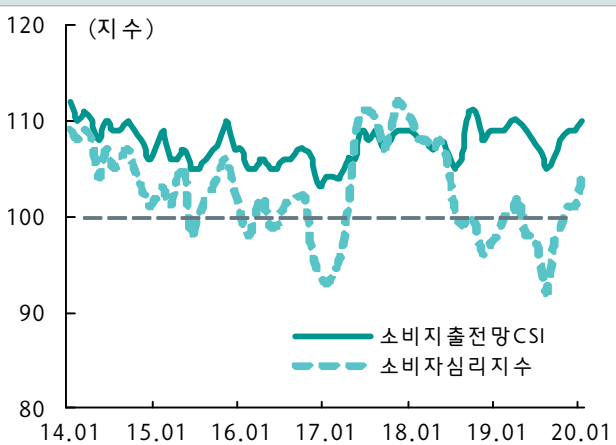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오프라인 감소세 전환**

- 오프라인은 편의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절상품 약세로 11월 2.4% 소폭 성장에서 12월 -1.9%로 감소세 전환
- 온라인 주요 업체 판매액은 배송 강화와 연말 할인 행사 강화로 성장세를 유지하며 10.5% 성장을 기록

**그림72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소비 심리는 회복세이나 코로나 이후 위축 예상**

-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중 1단계 합의문 서명 및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18년 6월 105.6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104.2 기록하며 회복
-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전망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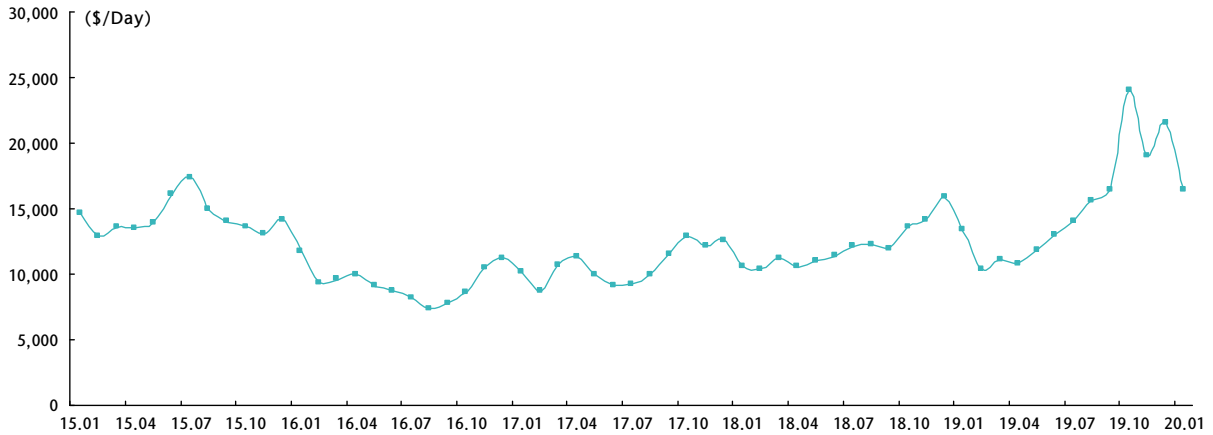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73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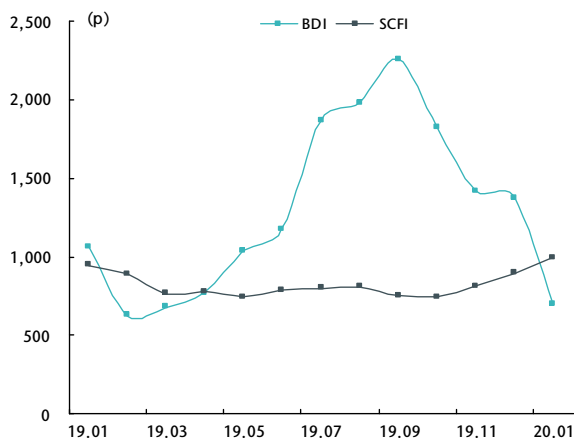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벌크선 운임 급락과 탱커선 운임 조정으로 하락

- 1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전월대비 23.6% 하락한 \$16,489/Day를 기록. 선종별로는 벌크선 운임이 크게 하락한 반면 컨테이너선 운임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탱커선의 경우 급등 후 조정 받는 모습
- 1월 LNG선 운임(174K CBM 기준)은 전월대비 15.5% 하락한 \$92,400/Day를 기록(작년 12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그림74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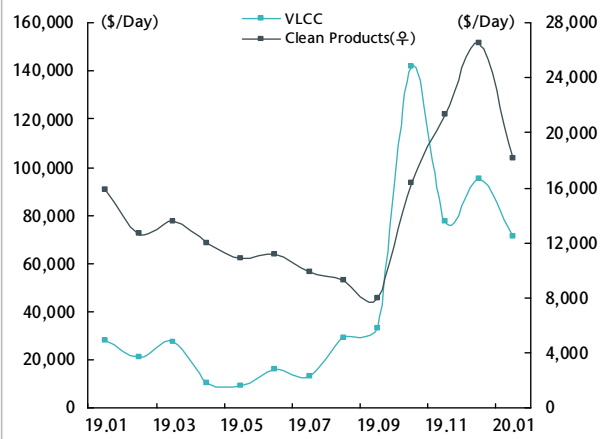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BDI 지수는 하락한 반면 SCFI 지수는 상승

- 1월 BDI 지수는 중국 춘절 연휴 효과 등으로 전월대비 49.2% 하락한 701p 기록(cf. 2019년 1월 1,063p)
- 동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SCFI 지수)는 전월대비 11.2% 상승한 999p를 기록(근해 및 원양 항로 운임 모두 상승)

그림75 | 탱커선 운임(Earnings)



자료: Clarkson

■ 탱커선은 VLCC 및 석유제품선 운임 모두 조정

- 1월 초대형유조선 운임은 작년 말 상승했던 운임을 받으며 전월대비 25.2% 하락한 \$71,215/Day를 기록
- 동월 석유제품선 운임 또한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가 조정을 받으며 전월대비 31.6% 하락한 \$18,113/Day 기록

##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fn.com>